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나의 미국 유학생활

送你一颗子弹(送你一颗子弹) - 韓國語翻譯論文

指導教授 金 中 燮

吳 恩 叔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 年 2 月

吳恩叔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4 年 2 月

목 차

1. 박식한 사람
2. 적극적인 사람
3. 또 다른 차원
4. What is he Building There
5. 자연
6. 또 다른 블로그
7. 빨간 입술
8. 주방 정치
9. 단체 아침 체조
10. 학습 불안증
11. 돼지머리고기에 대한 향수
12. 지난날의 꿈
13. Alice
14. 나는 “판샤오꾸앙”을 좋아한다.
15. 뉴욕커
16. 지하철 1호선
17. 모임
18. 혼란
19. 치마
20. 기술문제
21.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

박식한 사람들

내 주변에 박식한 사람이 몇 명 있다. 그들은 일종의 다른 생물 같다. 이들은 로마 역사를 많이 연구 해 왔고, 모든 농작물의 기원들도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

이들이 자주 토론하는 주제는 “정화가 서쪽바다로 갔을 때, 배는 과연 얼마큼 컸었을까?” “다음 과학기술 혁명은 도대체 어느 영역까지 일어날 것인가?”

주) 정화(鄭和)는 중국 명나라 초기의 사람으로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전후 7차례에 걸쳐 대 함대를 이끌고 해외원정을 실시한 인물

“삼국지, 수호전, 홍루몽에서 누가 누구와 간통을 했는가?” 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문제는 문과박사인 나는 마치 모든 분야에 박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호주의 선거제도와 캐나다의 선거제도의 다른 점을 잘 이해하고, 중아시아 지역이 인종진화 과정 중에서의 역할을 정확히 말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1492년의 역사적 의미를 당당하면서 차분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

사실 나 또한 박식하고자 시도했었다. 수시로 밤늦게 까지 등을 밝히면서 아주 두꺼운 역사, 지리, 과학 책과 씨름했다. 내심 어떤 자리에서 무의식중에 경전의 어구나 고사를 인용하여 말 할 수 있기를 바랬다. 하지만 나중에야 100페이지의 분량을 읽고 나면 앞 50페이지의 내용은 모두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앞쪽의 50페이지의 내용을 복습하고 나면 100페이지의 내용을 또 전부 잊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전전긍긍하다 결국에는 100페이지의 내용을 대략 기억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 책의 작가조차도 모두 잊어버린다.

박식한 사람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신기하다. 그들의 뇌는 마치 거미줄처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곤충들을 붙잡고 있는 것 같다. 반면 나의 대뇌는 한조각의 수박껍질이다. 모든 지식을 밟기만 해도 흔적도 없이 미끄러져 사라져 버린다.

이런 나 자신을 알고 난후에는 질투가 생겼다. 나는 도처에 “지식과 지혜의 무관론”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나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지식은 단지 정보일 뿐이지만, 지혜는 통찰력이다.

글자 하나도 모르는 농촌 아줌마는 문제를 아주 깊게 볼 수 있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오히려 문제 분석을 조리도 없이 제 멋대로 해 낼 수 있다.

나는 심지어 더욱 사악한 『지식과 지혜의 역상관론』을 발명했다.

일부 지식은 해박하지만, 논리가 다소 혼란스러운 사람을 목격한 후, 나는 내 견해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 시켜버렸다.

박식한 사람은 종종 논리적이지 않아도, 변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근거를 들어가면서 그 관점을 논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그다지 박식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증을 제시할 수 없어 병어리 처럼 말문을 열 수가 없다. 이로 인해 박식한 사람들은 논리능력을 연마할 기회가 없다. 하지만 사실 증거만 제시하는 것은 엄밀한 과학논증방법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 낸 후 나는 아주 들떴고, 큰 심리적인 위로를 얻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은 모두 궤변된 것이라 누구의 동정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게 문과박사로서 호주의 선거제도와 캐나다의 선거제도의 다른 점을 이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중아시아지역의 인종진화 과정에서의 역할과 1492년의 역사적 의의를 알고 있기를 바란다.

이전에 “小隶”를 말했던 어느 모 학교의 지도자가 강단에 서서 상식의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것을 보았다.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 이때 나는 칩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 청화대 총장이 손님에게 서예작품을 주면서 小篆 글씨체를 小隶이라고 잘못 말함.

그리고 한번은 ‘언젠가는 인류가 일종의 칩을 발명하여 대백과 사전을 대뇌에 끼어 넣고 뇌로 Google 칩을 검색하며 언제든지 박식함을 자랑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다. 나는 이런 날이 오기를 정말로 기대한다.

문구점에 들어가서 “아가씨, 대뇌하드디스크를 사고 싶은데요 ”라고 하며 “손님 외장식, 내장식, 40G, 100G 어떤 것을 찾으세요? 라고 말하는 아가씨의 말을 끊고 “용량이 제일 큰 외장식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날을 꿈꾸어 본다.

적극적인 사람

내가 Miriam과 가깝게 수 없었던 이유는 그녀는 항상 자아 발전을 위해 너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대충 장담할 수 있다.

Miriam는 독일에서 온 여학생이다. 늘씬한 몸매에 행동도 우아하다. 모두들 그녀의 이야기를 할 때면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우리 과의 독일미녀”라고 부른다. 그녀는 나보다 한 학년이 아래였다. 2003년 여름 우리 과의 “통과시험”을 참가하려고 했다. 내가 일 년 전에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경험을 전수 받으러 왔다”며 나를 찾아 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난 미국에 간 후 신선한 감이 아직 채 가지지 않을 때였다. 나는 친구를 사귀는 수집벽이 있어, 모든 국가의 친구들을 모두 사귀고 싶어 했었다. 앞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미녀를 바라보면서, 뇌는 나의 친구지도를 한 바퀴 쪽 걸어 돌았다. 그래서 나의 지도에 그녀의 아름다운 독일국기를 끼워 넣기로 결정했다.

그 주말에 마침 친구들을 식사에 초대하기로 했는데 그녀도 초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오페라를 보러 간다면서 나를 불렀다. 그 다음에는 내가 그에게 커피를 대접했다. 그 다음은 그녀가 나를 파티에 초대했다. 너무나 멋진 시작이었다. 원래는 독일 여성과 중국 여성이 함께 이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중국과 독일의 우정 온도는 30도까지 올라가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땀감을 넣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눈물 날 정도로 연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녀는 너무 적극적이었고 나는 지나치게 소극적인데 있었다.

만약 우리가 모 교수에 대해 말하면서, 내가 그 교수의 흉을 보려고 하면 그녀는 “아하 그 교수는 정말 대단해”라고 말했고, 모 학술회의가 너무 지루했다고 말하고자 하면 그녀는 “학회는 너무 유익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라고 했다. 논문을 쓰는 게 힘들어 하소연 하려고 하면 그녀는 오히려 “나는 논문

쓰는 것이 너무 즐거워 ”라고 말한다.

나는 우정을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은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함께 다른 사람의 흥을 같이 볼 수 있는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내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생활은 그녀에게 있어 너무나 찬란한 빛이다. 자로 꼭 맞춘 것처럼 그녀가 입은 작은 치파오는 그녀의 몸에 딱 맞아 떨어진다. 내가 입으면 오히려, 가슴이 있어야 할 곳에 가슴이 없고, 엉덩이가 있어야 할 곳에 엉덩이가 없다. 정말이지 좋은 옷감을 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중국은 제3세계 국가이며, 독일은 자본주의 국가로 성격이 아주 다르다. 이것이 역사유물론의 관점으로 해석한 결론이다. 그러나 가슴과 엉덩이가 드러난 “치파오”를 입은 그녀를 보고 있으면 쑥스럽고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그녀와 같이 잘 어울려 놀지 않는다. 어제 과에서 그녀를 만났다. 인도네시아에서 조사를 하고 막 돌아 왔었다. 예전처럼 얼굴이 밝고 화사했다. 나는 “이번 조사가 어땠니? 낯선 국가에 혼자 가니 외롭지 않았니?”라고 물었다. 그녀는 “아니, 그럴 리가 있겠니”라고 짧게 대답했다. 내가 “이번 학기는 바쁘니?”라고 묻자, “음.... 회의 두 번, 논문 세 개, 조교 일등등” 그녀는 아주 들뜬 목소리로 나에게 전부 오픈했다.

그녀의 흥분된 목소리에서 나는 또 내 자신이 아주 작은 곤충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거액의 재산을 감춘 것처럼 초조와 불안을 안고 벽에 달라붙어 풀이 죽은 채 허구적이고, 안전한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또 다른 자원

당신도 분명히 이런 친구가 있을 것이다. 은행에서 일하고 외모는 평범하고 일도 그런대로 한다. 부인과 아이가 있어 성실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만약에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더라도 하는 말 대부분이 그리 재미있지가 않다. 어쨌든 꿍뿔 눈 맹물처럼 어떤 사고장에서든지 구석 모퉁이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당신도 이런 친구가 한명에 그치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당신 자신도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 파리로 가 처음부터 다시 그림을 배워 화가가 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상상도 잘 가지 않을 것이다.

내 주위에 이런 친구가 있는지 둘러보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상상도 어려울 것이다.

모음은 이런 사람을 소설에 썼다. 그의 이름을 찰스라고 지었다. “저녁 준비 다해 났어”라는 쪽지만을 남겨두고 17년 동안 같이 살아온 아내와 아이를 남겨두고 파리로 떠났다. 그때 그의 나이는 40세였다. 파리에서 가장 낮은 여관에 머물면서 수중에는 100원 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는 꿈을 꾸는 사람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 꿈을 이룬 이야기가 아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라면, 이 남자의 주인공은 20대 초반의 영특하고 위용스런 주인공으로 돈도 많고 예쁜 여자아이를 만난다. 그리고 분명히 그의 재능에 질투를 느낀 남자를 만 날 것이고, 그 남자는 기필코 이 아가씨를 쟁취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사악을 이긴다. 남자 주인공은 큰 거물이 되고 결국은 여주인공과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달과 육펜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전 세계는 꿈을 좇고 있다. 하지만 찰스는 그의 악운을 좇고 있다. 그것도 좋다. 사실 이 두 가지 일은 그렇게 틀리지는 않는다. 꿈에 떠있는 사람은 자기의 악운을 좇고 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꿈은 진짜 꿈이다. 아빠와 엄마가 말하는, 선생님이 말하는, TV나 신문지상에서 말하는 그런 청사진이 아니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뛰어넘는 고액연봉의 꿈이 아니다. 사냥꾼이 참새에게 마련해 준 올가미 안의 쌀알이 아니다.

찰스는 마치 나는 듯 한 빠른 걸음으로 그의 악운을 쫓고 있다.

5년 후 그는 파리에서 가난과 병에 시달리면서 작은 다락방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사경을 헤매고 있다. 만약 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거의 죽음은 목숨이 되었을 것이다.

나중에 그는 거리로 내몰려 부두의 인부가 되었다. 또 몇 년이 지나, 그는 스스로 태평양의 작은 섬으로 들어갔다. 문둥병에 걸리고, 양쪽 눈은 실명되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는 그의 최고의 작품을 불태워 달라고 했다.

15년 동안에 런던의 주식 거래원들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도시와 문명을 뛰어넘고, 중산계급을 뛰어넘었고, 태평양을 뛰어넘고 인성을 뛰어넘어 마침내는 운명이라 불리는 사나운 말을 쫓았다.

“ He lives at another level”. 영화 《Big Night》에는 이런 대사가 있다.

찰스는 나에게 이 대사를 떠오르게 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덧셈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의 인생은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다.

사람의 신분은 자아를 묶어 놓고 있다. 유일하게 자유로 통하는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찰스는 더 이상 “남편”, “아빠”, “친구”, “동료”, “영국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신분 하나, 하나를 다 던져 버렸다. 한 겹 한 겹의 옷을 벗어 최후에는 발을 들어 나체의 몸으로 마음속에서 부르고 있는 얼음 통 굴속으로 들어갔다. 소설에 나오는 “내”가 그에 물었다.“설마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 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설마 사랑조차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랑은 단지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 할 뿐 입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가 가난해진 것을 동정 하겠지만, 그는 붓을 들었을 때 오히려 자기가 군왕이 된 느낌이 들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당연히 혐오스럽다. 그의 눈에는 오로지 자신뿐이고 다른 사람은 없다. 이기적이고 책임감이 없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또 아주 불쌍하다. 그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꿈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꿈에 제압당한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한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다.”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과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숙명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꿈은 너무나도 요염하고 너무나도 예리하다. 사람들은 당황하다 도처에 숨어버린다. 공명을 향해 뛰어가고, 관록을 향해 뛰어간다. 공명과 관록을 추구하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증오감이 생긴다.

하지만 찰스는 “사람들”의 “들”을 거부한다. 온 사방에 육펜스가 널려 있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달을 보았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나의 뇌는 찰스의 최후의 장면에 매어 있었다.

태평양 외로운 섬 깊은 숲속의 허술한 흙집에서 문동병에 걸려 초췌 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노인은 자기가 그린 벽 앞에 앉아 거세게 일고 있는 파도의 색깔을 듣고 있다. 실명이 되었기 때문에 단지 색깔을 들을 수밖에 없다. 금색은 고음, 흑색은 저음, 흰색은 미풍, 빨간색은 날카로운 소리다.

나는 이런 광경에 조금의 연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인정 한다. 왜냐하면 마음 속에는 경외심만 있고 너무 놀라울 뿐이다.

이것을 나는 소위 고요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위 승리라고 생각한다.

비록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슴 앞에 십자가를 긋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상황일 것이다. 그들의 모습이 상상 간다.

what is he Building There ?

스타박스에서 늘 앉던 자리를 짹짹 차지해 앉았다. 옆에는 노인 한분이 앉으셨다. 언뜻 보기에는 마르크스를 닮았다. 특히 긴 수염을 하고 있는 지혜로운 모습은 더 많이 마르크스를 닮은 것 같다.

그의 앞에는 한 잔의 커피와 신문이 놓여 있다. 하지만 이 마르크스 선생은 신문을 읽지 않고, 자본론을 쓰는 것도 아니다. 그는 그저 흔들기만 하고 있다. 상반신을 앞뒤 30도로 각도 계속 흔들고 있다. 그런 다음 상반신을 멈췄다가 오른쪽 다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흔들고 나서 그는 사라졌다.

그가 나가고 나니 정말 기뻐다. 하지만 5분정도 지나자 그가 다시 돌아와서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허리를 굽혀 양쪽의 팔꿈치를 허벅지 위에 지탱하여 머리를 숙이고 흔들기 시작하였다. 먼저 왼쪽다리를 흔들다가 다시 오른쪽 다리를 계속 흔들었다. 마치 태엽을 감은 로봇처럼 움직이는 폭과 방향과 빈도 수가 아주 똑같이 움직였다. 인민의 교사인 나는 신성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60cm 정도 떨어져 앉아 있는 마르크스씨는 쉬지 않고 계속 기계처럼 움직였다. 당연히 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었지만 계속 흔들어 대는 마르크스씨의 체력과 인내력에 호기심이 생겨났다.

사실 이런 호기심은 걱정을 넘어 설 정도였다.

그래서 흔들는 강박증이 있는 사람과 호기심에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같이 대치하고 있었다. what is he Building There ?

이것은 Tom Waits의 노래이다. 비록 그의 노래 중에서 내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한 곡이지만 그 노인이 나의 왼쪽에서 기계처럼 계속 흔들어 대고 있을 때 나의 뇌에는 끊임없이 이 노래가사가 떠올랐다. 그는 무엇을 짓고 있을까?

이 노인은 도대체 무엇을 짓고 있을까?

브로드웨이 거리 100가~110가에는 매일 흑인 한명이 나왔다 사라졌다 한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챙이 까만 모자를 쓰고 큰 검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성경을 들고서 큰소리를 지른다.

Lord, I love you!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매일 날마다 이렇게 한다. 어느 깊은 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를 통해 그가 길에서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Lord, love you! I love you! .

한밤중 비 내리는 가로등 밑에서 모자를 눌러 쓴 흑인이 성경을 들고 큰소리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모습을 상상 해 보아라. 시적인 미치광이, 그는 무엇을 짓고 있는가?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강의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었다. 그날 정오에 교실 안에는 나 혼자만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책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걸어 왔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당연히 공부하러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창가로 걸어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책만 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창가에 서서 뭔가를 치켜들고 있는 것 같아 고개를 들어보니 그 젊은 남자 아이는 나를 향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으로 성인남자의 성기를 봤다. 나는 그것이 순간 성기란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가 어릴 때 봤던 어린 남자아이의 그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그것은 빨간색 이었다. 하지만 나의 냉철한 이성이 남자의 그 부위에 있는 것은 단지 성기 뿐 이라는 것을 신호 보냈다.

정오 교실에서 이 청년의 행위예술가의 행동은 순결한 여대생을 문을 박차고 도망치게 만들었다. 그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는 순간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무언가를 애원했다. 이 애원하는 미치광이는 무엇을 짓고 있는가?

당신은 혹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치광이는 정확하게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다른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다.

균형. 나는 이 단어를 아주 좋아한다. 균형은 상승 혹은 추락, 회전 혹은 파괴, 모두 우아한 종착점이 마침이 있다는 의미이다.

나는 ‘모든 미치광이는 난처한 상황 때문에 미치는 것’이라는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말했던 어리석은 말과 행동, 사귀었던 어리석은 친구, 이 모두가 정말 부끄러워 견디기가 어려워 미쳐버린 것이다.

자기의 기억 속에서 빠져 나오고 싶은 아름다운 희망 때문에 그들은 비밀의 우주선을 타고 또 다른 균형 속으로 날아간다.

물론 이것은 어떠한 이론도 아니다. 단지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표

현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부끄러움은 분노보다 비애보다 상심보다 의기소
침한 것 보다 더 본질적으로 사람의 처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상상력이 더 크다
내가 스타박스를 떠나려고 할 때 그 노인의 동작도 멈췄다.

계속 흔들어댔던 마르크스씨는 힘들어 조용하게 의자에 앉아서 커피숍에 앉아
있는 다른 노인들처럼 뉴욕타임즈를 읽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지었는가?

자연

이웃에 스티브라는 미국 노인이 살고 있다. 70세가 훨씬 넘었지만 학교 기숙사에 끼여 살고 있다. 학교에서 이 건물을 살 때 그 노인은 “원주민”으로서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학교 측에서도 딱히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를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이곳에서 몇 십 년째 살고 있다. 스티브씨는 가족을 일찍이 모두 잃었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한명의 친구도 그를 찾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짐작이 가겠지만 이런 노인들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붙잡아 두고 쉴 새 없이 재잘재잘 수달을 댈다.

그는 매일 저녁 희끗희끗한 수염을 염색하고 양 어깨에 가방을 둘러매고 밖으로 나간다. 어디로 나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아침에 돌아와서 낮에는 잠을 자고 오후가 되면 목욕을 하고 다시 단장을 한다. 하루 세끼는 바나나 칩을 넣은 콘푸리스트를 먹는다. 살아가는 가는 모습은 나름 활기차다. 하지만 나는 늘 그 노인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의 집은 언제나 닫혀있다. 다른 사람에게 방안이 너무 어지러운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라고 말은 한다. 하루는 그가 나를 찾아와 “나의 방 크기에는 어떤 사이즈의 에어컨을 사야하는지 살펴봐 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그의 방에 들어서기 전에 그는 대충 한차례 치워 정리했지만 나는 깜짝 놀랐다. 약 50평방미터 쯤 되는 방이 온통 신문지였다. 길게 늘어진 신문지에 바늘하난 들어갈 틈이 없다.

놓을 공간만 있으면 전부 신문지로 쌓아 났다. 1960년대부터 수집한 신문지는 먼지가 자욱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서 있는 동안은 아주 오싹하고 기분이 묘했다.

그는 포스터를 좋아했다. 방안 거실 복도 여기저기에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자주 포스터를 갈아 걸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의 포스터가 반이고, 공포 포스터가 반 정도 걸려 있었다.

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는 장면, 얼굴이 사색된 초상화, 혀가 입 밖에 걸려 있는 포스터.

그는 예술과 공포를 똑같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노인이 아마도 시인이면서도 살인범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노인은 신경질적이고 전형적인 편집증 환자이다. 시시때때로 거실 혹은 대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쪽지의 글씨는 잘 분별할 수가 없었다.

내용도 뒤죽박죽이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 나의 포스터의 압정을 훔쳤나요, 나에게 돌려주세요.”, “누가 거실 테이블의 식물을 테이블 밑으로 옮겨놨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등 이런 내용이다.

한때 룸메이트가 거실에서 공부를 했다. 거실의 콘센트가 쇼파 뒤에 있어, 쇼파를 오른쪽으로 3cm정도 옮겨야 컴퓨터 스위치를 쉽게 켤 수가 있어 쇼파를 조금 옮겨 왔다. 그 다음날에는 쇼파가 또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져 있었다. 또 옮겨 놓으면 그 다음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하루는 그녀가 노인에게 “쇼파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냐”고 물었다. 노인은 반드시 쇼파의 중심선은 벽에 있는 그림의 중심선과 수직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못 견뎌한다고 했다.

그는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같이 말할 사람은 없다. 매번 나나 다른 룸메이트를 만나면 마치 보물을 만난 것처럼 꼭 붙잡아 두고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말한다. 말의 속도는 내가 “미안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 가봐야겠습니다”라는 말조차 끼어들 틈이 없다. 오로지 계속해서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설사 내가 한쪽 발이 화장실에 대 놓고도 분명히 장편의 토론을 다 마치기 전에는 다른 쪽 발은 화장실 안에 들어 갈 수가 없다.

오늘 복도에서 그를 만났다. 그가 나에게 심장병이 도졌다고 했다.

Oh, I'm so sorry.

나는 거기에 서서 그가 말하는 그의 심장문제를 듣기 시작하였다. 내가 이 아파트에서 사는 4년 동안 이 노인은 많이 늙었다. 이전에는 걸음걸이도 날아갈 듯이 아주 날렵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얼굴이 초췌해 지기 시작하고 몸도 점점 야위어갔다. 막 기숙사에 왔을 때 한 룸메이트가 그 노인이 방 안에서 죽어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가 죽은지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걱정을 했다. 4년이 지난 후 이 근심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지금 그는 심장병이 있다. 그를 위로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다.

건물 수위조차도 나에게 그는 “Pain in the ass”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 나는 어떻게 스티브씨를 위로 해 줄 것인가? 친애하는 스티브씨! 어디에도 가지 마세요, 당신의 방에서 인내를 가지고 죽기를 기다리세요.

그의 눈과 바짝바짝 말라가는 입술을 보면서 나는 그가 무서워하고 있을까? 방안에서 죽어 시체 냄새가 밖으로 나갈 때 까지 아무도 모르면 어떡할지 무서워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정해 진 기정사실이 고속열차처럼 그를 향해 달려와 다시 그를 역사의 쓰레기 더미 속으로 묻혀버릴 상황이다. 그가 몸을 한번 돌려 뒤를 보기만 해도 신문지에서 부패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사실 그는 이미 죽어 부패되고 있다. 단지 삶을 거꾸로 서술하면서 재방송하고 있는 것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예술포스터와 공포포스터를 가득 붙인 거실에서 그의 심장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저녁에 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자연에 대해 말했다. 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까지의 생활은 자연과 거리가 멀다! 라고 말했다.

매일 아침 힘겹게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서둘러 사무실에 나간다.

『의미』 하고는 무한한 거리가 있어, 따라서 그 관계가 무한히 약해진 관계로 얽혀진 일에 종사하고 끝나면 차속에 뻑뻑하게 탄 낯선 사람들 속에 끼여 땀을 흘리면서 헉헉 대며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오면 너무 지쳐 저녁 먹고 잘 힘 밖에 남아 있지 않는다. 이것은 자연과 거리가 멀다.

전화 저쪽에서 네가 생각하는 “자연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말해봐 ” 라고 했다. 나는 멍해졌다. 어떤 생활이 자연이지? 학교에 다니고 대학시험을 보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았다. 온몸을 던져 약간의 흥겨움을 만들고 이 흥겨움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투덜대고 있다. 어떤 생활을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갑자기 외롭고 약하고 발광하고 할 일이 없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스티브씨가 떠올랐다. 청춘의 질은 안개가 다 사라지면 시간이라는 황무지만

드러난다. 사람이 일생동안 분투하는 것이 바로 이 미친놈의 자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닌가. 마음이 흠칫했다. 전화 이쪽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또 다른 블로그

나는 아이슬란드를 좋아한다. 얼음과 섬 이 두 글자를 조합하여 쓰니까 듣기가 너무 좋다.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30만 명, 오로지 30만 명만이 아이슬란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행복지수는 전 세계에서 4위라고 인터넷에서 소개하고 있다.

나는 여태껏 아이슬란드를 가보지 못했다. 나는 단지 나의 상상속의 아이슬란드를 좋아할 뿐이다. 한적한 분위기, 맑은 공기, 손을 뻗으면 하늘에 닿을 것 만 같은 곳이다. 사실 같은 이유로 티베트를 좋아한다. 하지만 티베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 나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많은 것과 관련 된 모든 것들을 경계한다.

그래서 나는 아이슬란드를 좋아하게 되었다. 한때 나는 그야말로 블로그광 이었다. 동시에 네 개의 블로그를 개통하였다. 그중 세 블로그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단 한 개의 블로그만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블로그 이다.

또 하나의 블로그를 개통한 원인은 나의 블로그 독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나는 완전히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내용적으로 나는 갈수록 공공의 화제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자신의 사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갈수록 적합하지 않았다. 그 다음 형식적으로

『논리』라는 감시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치와 근거가 있게 하나의 관점을 말해야만 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 나는 흥미 관점만 말하고 싶지 정확하고 완벽한 이치와 근거로 표현할 흥미가 없다.

예를 들면 어떤 때는 나는 단지 "fuck you" 라고 말하고 싶지 결코 상세하게 왜 "fuck you" 하는지, 어떤 자세의 "fuck you" 인지, "fuck you"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나는 더 이상 초조하고 우울한 면을 마음

대로 폭로할 수가 없다. 이천 쌍의 눈앞에서 처참한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진다. 나의 진지한 우울함과 조바심은 이천 쌍의 눈앞에서는 하나의 공연으로 변해버려 나 자신도 느낌인지 아니면 실제 상황인지를 잊어버리게 한다.

아무튼 하나의 자아는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정확하게 일을 추진하고,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다.

또 다른 나는 사소한 가치 없는 일에 신경 쓰고, 조리 정연하지 못하고, 제정신이 아니게 극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후자는 전자의 권위주의를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다.

걸고 걸었다. 떠들썩한 유라시아대륙에서 인적이 드문 아이슬란드로 갔다.

이 일은 내게 인성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 사람들의 시선에 둘러 쌓이면 질식하고 자유를 느낄 수 없다. 인정을 받는 것과 자유를 추구하는 것 사이에는 변증의 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나는 영원히 정치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가는 정확하게 저울질 할 수 있는 작은 저울을 가지고 자세하게 자신의 모든 단어의 중량을 재야한다. 따라서 맘대로 다른 사람의 코를 가리키며 “fuck you”라고 말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이것은 얼마나 큰 손해인가?

당신은 한 블로그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동시에 다른 블로그에서 자유롭게 떠들 수 있다. 그러나 생활 중에서는 어떨까?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동시에 대륙과 아이슬란드에서 살수가 없다.

아마 너의 말이 맞다. 나는 사실 아이슬란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단지 타인의 시선이 떠다니는 세계가 너무나도 느끼하게 느껴진다.

내가 말하는 아이슬란드는 청정하고 깨끗한 생활을 말하는 것뿐이다.

빨간 입술

섭씨 15도. 모두가 와이셔츠와 티셔츠를 입고 있다. 그리고 많이 입어봤자 재킷 하나 더 입을 정도 입고 있었다. 하지만 노부인은 아니다. 한쪽으로 말린 검은색 모자, 검은색 외투, 긴 스타킹, 검은 가죽신발을 신은 노부인의 차림은 마치 1950년대의 미시처럼 단장했다. 실수로 길을 잃어 21세기까지 걸어온 듯 했다. 그녀는 작고 말랐다. 마트에서 줄을 길게 서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그녀는 나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미 판매원과 한참동안이나 실랑이를 했다. 아마 비타민 가격 때문인 것 같다. 한참동안이나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그녀는 조금도 조금해 하지 않았다.

느긋이 팔을 걷어 부치고, 약병에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느긋하다.

뒤에 있는 갈수록 인내를 잃어가는 긴 줄을 보면서 다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뒤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아주 깊게 파인 주름살과 얼굴에는 조금의 살집도 없었고 표정도 없었다. 대략 80여세쯤 되어 보였다. 아니 100세까지도 되어 보였다. 아니 200세 같아 보였다.

어쨌거나, 이 연령들은 사실 의미 있는 연령이 아니다. 하지만 80세의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의 작은 입술에 진한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한편의 글을 읽었다. 주제는 영화 『무극』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이다. 평가 대부분은 “왜 조금도 사람의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가?”, “가소로운 컴퓨터기술과 인류의 쉰후 연기를 사 용했다.” “감정은 대부분 억지로 강요한 것이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점수는 대부분이 C-혹은 C이다.

그리고 또 한편의 문장을 봤다. 주제는 “천카이꺼”가 또 화가 났다.

무극은 조잡한 영화가 아니며 반품도 없었다.” 내용에는 또 천카이꺼의 성명을 언급했다. “만약 정말로 반품이 있었다면 현재 세계 최대 오락회사인 워나가 왜 수입하였을까? 또한 만약 《무극》이 실제로 조잡한 영화라고 하면 왜 66개 도시에서 상영을 하려고 했는가?”

나는 천카이꺼가 이런 말을 할 때 엄숙한 얼굴에 비치는 정의로운 표정과 분노의 눈빛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80세 노마님 얼굴의 붉은 입술을 보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슬펐다.

사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부인도 아니고 천카이꺼도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이다.

매일 아침 깨어나서 낯선 거리의 고아 같지만, 또 힘 센 장사가 되어 손에는 이상의 기치를 메고 자신의 사회를 개조하고자 하는 주장을 선전하고 있다.

나에게는 Y라는 친구가 있다. 그는 33세로 무일푼의 아주 곤궁한 친구다.

수많은 부자가 되는 계획이 실패한 후 다시 주식을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주야로 주식 분석표를 보고 있다. 또 x라는 친구가 있다. 이미 H와 1년쯤 교체하고 있다. 그는 시종일관 그녀에게 약속을 할 수가 없다. 마음은 기다릴수록 식어가 다른 사람이 물으면 그저 결혼을 조급하게 생각 안 한다고 대답 할 뿐이다.

사담이란 사람이 있다. 사담은 보기에 아주 수척해 보였다. 그러나 법정에서 신문 중에 그는 존재하지 않는 청중한테 미 제국주의를 내쫓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K라는 친구가 있다. K는 망명자이다. 오랫동안 나라가 있어도 돌아오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얼떨결에 50세가 되어갔다. 친구들과 식사자리에서 그는 몽롱해진 사람에게 끊임없이 정치 설교를 하고 있다. 그는 두 시간 정도 연설을 하고 마지막으로 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는지에 대해 말했다.

또 여름이 왔다. 2006년 여름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맑은 하늘아래의 공기에서 짹짹 하는 소리가 귓가에 퍼졌다. 여기저기에 선명하지만 부질없는 빨간 입술만 여기저기에 나부끼고 있다.

주방정치

나는 내가 살고 있는 학생 기숙사의 “거주자문”이다. 듣기 좋게 얘기하면 “건물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거주위원회 아줌마”이다.

나의 유일한 임무는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것이다.

나의 업무는 대체적으로 이렇다. 어떤 학생이나 청소부가 찾아와 숙소의 어떤 문제에 대해 하소연 하면 내가 나서서 해결해준다.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간곡하게 모두에게 세계평화의 의미를 알려준다. 대중들이 반영하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주방이 너무 더럽다거나 누가 냉장고의 물건을 훔쳐갔다거나. 누가 너무 시끄럽다, 누가 너무 늦게 들어왔다, 거실에 물건을 쌓아 놓았다 등등이다

지난 3년 나는 정치교도원처럼 이 건물을 오르내리면서 동분서주 했다.

이 동안 나는 성공적으로 네팔사람과 인도사람 간의 분쟁을 화해시켰다. 듣건대 네팔사람은 늘 너무 늦게 귀가하고, 인도 사람은 한밤중에 큰 소리로 교과서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보복하여 싸움이 났다고 했다. 또 대만 여학생과 일본 여학생의 마찰을 해결해주었다. 그 대만 여학생은 늘 문을 열어 놓기를 좋아했다. 이에 그 일본 여학생은 그녀의 속옷을 창턱에 내 팽개쳐 항의를 하는 바람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했다.

나는 또 성공적으로 소음 문제를 해결했다. 필리핀인 같기도 하고 캄보디아인 같기도 한 여자애가 이상한 종교를 믿어 매일 방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는데 그 때문에 이웃들이 항의하러 찾아왔다.

어쨌거나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이다. 나는 대중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대중을 위해 어려움을 해결 해 주었고,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민족 특색이 있는 이상한 행동도 이해 할 수 있었다. 어쨌면 내게는 일거양득 인 셈 이였다.

하지만 나는 심각한 시련에 부딪혔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한 어려움인데 바로 나의 숙소 문제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숙소의 주방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숙소 구조를 잠시 소개해야겠다. 이곳은 10명의 함께 생활하는

남녀 공용 숙소로 각자 자기 방을 쓰고 있다. 하지만 거실, 주방, 화장실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오해는 하지 말라. 화장실은 남녀용 두개가 있다. 보통 주방의 깨끗한 정도는 이 기숙사의 중국인의 수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중국인은 요리를 좋아한다. 그리고 요리는 외국인들이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엄청난 성대한 기세로 매번 요리를 하고 나면 주방은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체가 도처에 널려져 있다. 여기 저기 보이는 기름자국, 채소 잎, 밥알, 그릇, 젓가락 같은 것들이다. 우리 숙소 주방은 불행하게도 열명 중 여섯 명이 중국인이다. 그중 또 네 명은 중국 남학생이다.

나는 원래 남학생이 많으면 주방은 당연히 깨끗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네 명의 남학생이 요리를 할라치면 시합을 하듯 격정에 차 넘친다. 마치 조국을 사랑하는 거대한 열정을 요리하는 마음으로 바꾼 것 같다. 매일 고기 맛이 안 나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인의 별다른 취미가 없는 생활이 주방에서 만나 자글자글 소리 내며 볶아졌다. 이와 반대로 여학생 두 명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요리를 하지 않았다.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사 온 아랍 형제 역시 놀랍게도 요리 애호가였다. 심지어는 복도 제일 끝에 살고 있는 미국 여학생도 요리할 때 기름 솥을 사용하지 않는 미국인들과는 너무나 다르게도 시시때때로 피망닭고기볶음 요리를 했다

불쌍한 주방은 마치 팔로군 연합군에 점령당한 중국처럼 매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비록 상황이 이렇지만 도리를 따지면 해결 못하는 문제는 아니다.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청소하는 것이다. 비록 이 건물에는 청소부가 있지만, 일주일에 청소를 한번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주방사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었다. 매일 청결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스스로 청소를 해야 했다. 우리들의 계약서에는 분명히 요리를 한 이후에 스스로 청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치대로 하면 무슨 분쟁이 일어날 만 한 것이 없다. 청소는 또한 아주 간단하다. 매일 요리를 하고 난후 가스렌지를 닦고, 취사 도구를 씻고, 썩크대의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기에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 목표지만 끝내는 실현하지 못했다.

지금은 내가 당신에게 우리의 주방을 참관시켜주면 아마 당신도 아주 간단한

문제를 발견할 것이다. 그 문제는 즉 "사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바로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든지 일이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방에 들어가면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가스레인지이다.

가스레인지위에는 진갈색의 기름자국과 채소 잎 파리, 육즙, 밥알, 그리고 이름 모를 불명의 물체들이 널려있다. 몸을 돌리면 하얀색의 선반장 볼 수 있다. 눈 같이 하얀 선반장 위에는 다진 파의 푸른색 육류를 썰면서 도마 위에서 흘러내린 빨간 핏자국, 그리고 알 수 없는 국물에서 흘러나온 누런색들이 아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기타 썩크대의 쓰레기통, 땅바닥 등의 상황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다. 어쨌든 모두가 내가 묘사한 상황을 따라 계속 상상하면 된다.

이런 형세가 이루어지기까지 천천히 악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나는 이 아파트에서 5년 살았는데 처음 3년은 기본적으로 평화기였다. 그때는 비록 많은 중국인들이 나와 밥을 했지만 모두가 규정을 지키고 평화롭게 지냈다. 그 사이 말썽을 피우는 인도 여자애가 있었는데 불과 일 년만 살고 이사를 갔다. 그 후 일 년 반은 원래 룸메이트가 이사를 가고 요리를 좋아하는 중국 남학생 A와 B의 입주로 주방의 형세가 급전하여 주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마지막 반년은 두 명의 중국 남학생 C와 D 그리고 아랍형제 E의 가입으로 주방 형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나와 이 주방 친구들과의 내전은 오래갔는데 바로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인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정치관을 철저히 바꿀 수 있었다.

그 2년 동안 나는 수차례 하늘에 묻고 땅에 물었다. 왜? 왜? 왜?!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치를 따지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가? 부드러운 미소 외교도 아니면 얼굴을 붉히며 험상궂은 외교도 그들이 매일 요리를 한 후에 몇 분의 시간을 들여 주방을 청소하게 할 수는 없었다. 하늘은 침묵하고 땅은 깊은 한숨을 지었다. 만약 2년 전의 나는 하버마스의 "이성적인 소통", "민주협상"의 신도였다면

오늘의 나는 이 주방의 경력 때문에 "신보호주의" 식의 자유 민주를 강력하게 수호하는 신념에 더욱 근접해 있었다. 만약 2년 전에 나는 "제도주의"에 대해 일종의 미신이 있었다면, 지금의 나는 이 주방의 경력 때문에 문화가 제도의 실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제도의 비용을 어떻게 낮췄는지에 대해 더 깊은 인식을 하게 되었다. 만약 2년 전에 나는 경솔하게 멋대로 정치가를 어리석은

바보라고 말했다면, 오늘의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은 동정과 존경을 가지고 있다. 만약 2년 전의 나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심지어는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의 실시한 입헌정치가 왜 계속해서 몇 번이고 실수를 되풀이 했는가? 라는 질문에 관심이 있었다면 오늘의 나는 입헌정치가 왜 유럽과 미국에서 성공했는가? 라는 반대의 질문에 관심을 가졌다. 그것은 지금의 내가 민주헌정의 실패는 거의 “필연”적이고 성공은 “우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비이성적이고 완고하고 이기적인 정도는 황당할 정도로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다. 바다보다 더 깊어 측량 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이다. 하늘보다 더 깊어 예측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2년 동안 우리 주방의 환경은 줄곧 중동지역의 형세처럼 점차적으로 악화되었고, 그 동안 나는 "덕으로 사람을 복종하게 한다.", "덕으로 사람에게 겁을 주고", "덕으로 사람을 혼내는" 세 단계를 걸쳤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악화된 형세를 바로잡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정치교도원으로서 이것이 나의 업무 중 가장 큰 좌절이고 재임기간 동안의 "주방게이트"임을 인정해야 했다.

"덕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단계는 2년 전 상반기다.

나는 줄곧 얼굴에 거주위원회 아줌마의 친절 한 미소를 띠고 우호적이고 상냥하게 숙소의 정책과 규정에 대해 해석해주었다.

가끔은 말하는 나 자신도 속스러웠다. 주방에 “요리 후에 청소를 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여놓고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정말 감사합니다.”와 “!”를 더 써 넣었다. 한번은 내가 A와 B 두 사람에게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용의 부탁 이메일을 보냈다. 요리 후에 청소와 위생에 신경을 써달라는 식의 부탁의 글 이었다. 하지만 나의 이성적인 설득은 효과가 없었고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매번 그들에게 물어보면 알았다, 알았으니 청소를 할 것이다. 청소를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날 주방으로 들어서면 앞에서 말한 그 모습 그대로이다.

그다음 분노를 성토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정면으로 교섭하지 않았다. 쪽지에도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심지어는 두 차례 당사자와 정면 충돌이 있었다. 한번은 내가 주방에 들어갔는데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 최고였다. 가스레인지 위는 기름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선반장 위는 더럽기 짝이 없었다. 참을 래야 참을 수 없어 5.5급 지진과 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수시로 나는 선반장위에 한수의 시를 쪽지로 남겼다.

왜 청소를 할 수 없는가?

왜?

왜?

더러운 것을 그렇게도 사랑하나 ?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

엣 먹어라.

당연 그 시는 누군가에 의해 금방 뜯어졌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더 호전 될 수가 없었다.

이런 형세를 일 년간 계속되었다.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한다면 나는 결코 결벽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나의 어머니가 증명해 줄 수 있다. 사실 몇 명의 다른 룸메이트들은 나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토했다. 이전에 내가 블로그에서 말한 적이 있는 steve 할아버지는 나에게 이 사람들은 "30년 동안 접해 온 룸메이트 중 가장 더러운 룸메이트"라고 알려주었다.

수시로 닭고기를 볶아대던 미국여학생도 “주방에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했다. 나 또한 그 후부터 요리 횟수를 급격히 줄여 일주일에 네다섯 차례에서 한두 번차례만 밥을 했다. 매번 부엌에 들어갈 때 마다 나는 부엌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러운 냄새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마치 그들 몇 명이 함께 나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내가 거주위원회 자문이고 학교에서 무료로 숙소에서 살게 했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라면 나도 일찍 떠나버렸을 것이다.

작년 가을 C, D, E가 이사를 왔다. 아주 빠르게 그들은 우리 주방의 우수한 전통에 융화되었다. 그들은 실제 행동으로 문외한인 Steve씨에게 더러움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솔직히 이 단계까지 오니 나는 도리어 가슴이 탁 트여 분노가 사라졌다. 어차피 나는 이미 거의 요리를 안 한다.

주방을 더럽게 하는 "검은손" 또한 자기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다. 악화가 양화를 축출한 후, 주방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그들 자신 이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당시 홍위병이 공안, 검찰, 법원의 권한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타도하고 뒤집은 후 더 이상 타도할 대상이 없어 결국은 내부에서 분란이 생긴 것과 같았다.

그래서 A는 B가 버린 쓰레기를 치워야 하고 C는 D가 더럽혀 놓은 선반장에 도마를 올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야 말로 고소했다. 2년간 이성적으로 설득기이든, 분노 성토기이든, 분노를 초월한 기간이든 이 주방 문제를 대할 때 정치학 박사생인 나는 줄곧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즉 이성적으로 조화롭고, 정의로운 공공질서는 가능한 것인가?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장애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적이 있고 공자도 생각한 적이 있다. 또한 제도 학파인 더글러스 노스가 생각한 적이 있고, 신유가의 정치가인 이광요도 생각한 적이 있다. 나는 숲속에서 뛰어나온 유인원들이 소금을 뿌리지 않은 고기를 차지하기 위해 한데 뭉쳐 싸울 때도 이 문제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 주방 문제의 정확한 해결책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진정한 정치 철학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성 안에는 이기적인 면이 있다. 때문에 상과 벌의 제도를 만들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유리한 것은 따르고 해로운 것은 피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제도주의의 관점이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매번 한차례 청소를 할 경우 상금 100원씩 준다면 모두가 앞 다투어 청소를 할 것이다. 또 예를 들어 만약 청소하지 않는 사람은 흑인 근육남의 폭력을 감수해야 한다면 아마 모두가 체면가리지 않고 청소를 할 것이다. 이것이 왜 사회가 사유재산권으로 책임이나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지 왜 정부, 경찰,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법률 실행이 필요 한지를 보여준다.

만약 사람들이 모두 강렬한 공동체 의식이 있다거나 혹은 공동체 의식으로 설득이 가능하다면 상벌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사상개조”만 하면 될 것이다. 나와 같은 정치교도원처럼 그들에게 애타게 인생의 이상에 대해, 마르크의 무산 계급의식에서부터 모택동 주석이 치하한 퇴봉을 본보기로 따라 배우기까지, 덕치 국가에서 조화로운 사회까지 얘기를 해주면 결국 다들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얼얼 떨해져서 나의 잔소리를 듣기보다 자진해서 청소 하러 가려고 할 것이다. 이것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물론 나의 “사상개조”의 방법은 실패했다. 다시 제도로 돌아가 보면 만약 내가 험프게 매일 100달러씩 들여 포상을 걸고 청소를 시킨다면, 혹은 흑인 근육 남을 고용하여 매일 우리의 주방에서

아령운동을 하게 한다면 이런 제도는 틀림없이 우리 주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문제는 나는 돈이 없다. 설령 돈이 있더라도 내놓기 아까울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계약에는 요리 후 반드시 청소를 해야 한다는 관련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의 실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규정대로라면 이 문제를 학교 주방관리 사무실로 넘긴다면, 청소를 하지 않는 그들은 쫓겨날 것이다.

이는 청소를 하지 않은 그들에 대한 제도적인 징벌이다. 하지만 그러기위해서 나는 먼저 "입안"해야 한다. 먼저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혹은 누구들이 진정한 범인인지? 악질 범인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나는 매일 주방에서 누가 요리를 하는지? 누가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지 않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우리의 이 주방에서 요리 하는 시간대는 아침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다. 나는 이러한 시간과 기력이 없을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기력을 주방을 지키고 서서 범인을 잡는데 쓰기는 아깝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가운데 범인과 정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며 만약 범인이 오리발을 내민 다던가 혹은 그들이 연합하여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다면 주방관리사무실에서 공방전을 벌려야 하고 오래 그리고 지루하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행동은 요리를 적게 하고 주방에 자주 가지 않고 샐러드를 자주 먹던지 중국음식 배달 주문을 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 사상개조"는 실패했고, 상벌제도의 비용도 너무 높다.

이럴 때 또 어떤 힘으로 조화로운 주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숙소에서 앞서 3년 산 경험으로 본다면 조화로운 주방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런 저런 생각 끝에 가장 평범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자각이다. 책임의 자각, 공중도덕, 제도규정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이해, 환경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결국 문화적인 측면의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나는 이전의 어떤 때 보다 더 제도의 힘을 믿는다. 또 제도가 문화를 개조할 수 있는 힘. 즉 아령운동을 하는 흑인 근육남의 힘을 믿는다.

하지만 제도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의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나는 갈수록 제도도 중요하지만, 문화는 제도 실행 비용을 낮추는 제일 효율적인 요소라는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저께 저녁, 나는 주민위원회 아줌마의 신분으로, 숙소에서 자주 요리를 하는 몇 명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분노 때문은 아니다.

사실 나는 일찍이 관심을 끊었다. 어쨌든 몇 개월이 지나면 이사를 할 것이고 3월 혹은 4월에 한차례 귀국을 해야 한다

지금도 자주 요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주방에서 앞으로 요리를 할 가능성은 손으로 꼽힐 정도로 적을 것이고. 실제로 주방의 환경이 쾌적한지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 나는 내가 회의를 소집한 더 중요한 목적은 과학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고 정치적인 실험을 해 보기 위해서였다.

과학적인 측면을 말하자면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윤리학의 어느 측면이든 간에 나는 이런 “차라리 본인이 고통스러울지언정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게 할 수 없다는 심리가 도대체 어디서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었고 정치적인 측면으로 말하자면 나는 스스로 이런 실패의 낙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의 이기주의, 협애한 도량, 무책임감 등에는 한계가 있다고 자신을 설득하고 싶었다. 나는 인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싶었다.

"퇴직"하기 전 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만약 내가 이성적인 방식으로 숙소의 몇 명이 요리 후 청소를 하게끔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스스로 "이성적인 소통"이론을 믿으라고 자신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자신이 추앙하는 “민주협상”의 관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공공 영역과 시민사회가 중국 문화 안에서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론적인 소통, 민주협상, 발전된 시민사회는 내가 학술적이든지 아니면 감정적이든지 더 열망하는 것이다. 이성에 대한 신념은 글, 음악, 고추장처럼 나를 지탱 해 살아 갈 수 있는 이유이다.

이번 회의는 단결되고 성과를 거둔 원만하게 진행된 회의였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여태껏 청소를 잘 해 왔다고 자칭 한다. 모든 사람은 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앞으로 청소를 잘 할 것 이라고 한다.

이튿날 저녁 요리가 끝난 주방은 여전히 어지럽혀 있다. 도처에 시체가 널려있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마치 공포영화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몸을 돌리는 순간 보여준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눈빛에서 멈춰버린 한 장면 같았다.

단체 아침체조

1999년 여름부터 시작하여 나는 단체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모든 사회주의 대가족 구성원처럼 나 또한 어릴 때부터 단체의 품속에서 자랐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친구들이 같이 담당구역 가서 대청소를 하고 함께 단체 체조를 했다. 중학교 때는 학우들과 함께 저녁공연 리허설을 하고 함께 단체 체조를 했다. 대학 때는 여러 학우들과 함께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12.9기념 합창대회에 참가하고 함께 단체 체조를 했다. 하지만 1999년 여름부터는 단체체조를 하지 못했다.

국내 모 대학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정상 출근을 할 필요가 없고, 강의를 할 필요도 없어서 각자 프로젝트만 연구하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출국하여 공부를 했다.

학급이란 개념도 없고 단체 숙소의 개념도 없었다. 12.9합창대회도 없고 단체체조라는 것은 아예 없었다. 그 후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박사가 된 후 나는 학술적인 외톨이가 되었다. 혼자 책을 보고, 혼자 글을 쓰는 게 전부였다. 상대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누구를 상대할 필요도 없었다.

말끝마다 자유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학자에게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꿈이 아니 었던가 !

가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생활에 깊은 동정을 느낀다. 그들은 상사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부를 해야 하고 회사 업무를 위해 고객의 앞에서 진심과는 달리 억지로 웃음을 지어야 한다. 그들은 남편 혹은 아내에게 일거수일투족 하루 행적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몇날 며칠 밤을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며 보낸다.

동물원에 데려 가 달라고 졸라대는 아이도 없고 저녁밥을 해달라는 남편도 없다. 내게 보고 자료를 만들라는 상사도 없고 재잘재잘 떠들어 대는 룸메이트도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큰 무언가를 얻어 남몰래 즐거워하는 느낌을 나는 확실하게

느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모두 변증적인 것이다.

단체 생활은 "강제적인 교제"를 통해 어쩔 수 없이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면하게 했다. 반대로 외톨이 생활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전화를 들어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지워나가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린다. 이 사람은 시간이 있을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난번엔 내가 먼저 그와 약속을 하고 밥을 먹었는데 이번에 다시 부르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사실 다시 또 만나더라도 무슨 할 말이 있지?

한 끼의 식사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오히려 우리 사회주의 대가족은 시간이 없어도, 귀찮아해도, 무슨 할 말이 없어도 모두들 한자리에 모인다. 변증법이라 것은 정말로 머리 아픈 일이다.

나는 벌써 서른한 살이 되었다.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가 나의 문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얼른 일어나, 일어나, 아침 체조를 해야지”라고 깨워 주기를 바란다.

잠자리에서 짜증을 내며 일어나, 계슴츠레 눈을 뜨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면서 첫째와 둘째를 만난다. 세면실에서 셋째와 넷째를 만나 숙소로 돌아오면 머리를 빗고 단장을 하고 있는 다섯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따뜻한 태양이 비치는 곳으로 모여서 팔다리를 뻗고 스트레칭부터 정리운동까지 한다. 이런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아도 나중에는 그토록 귀찮아했던 체조가 나의 우울증을 예방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우울증과 귀차니즘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서운 것일까? 이것은 자살과 타살 중 어느 것이 더 무서운 것인가를 묻는 것과 같다고 본다. 같은 일이라도 보는 시각이 다름에 따라 틀린 것이다.

오늘 아침 길에서 친구를 만났다. 그녀는 “스터디 그룹이 매주 월요일 오후 모이는데 돌아가면서 주제를 토론하고 있어. 날씨도 너무 추운데 귀찮아 죽겠어! 안 갈수도 없고. 늦어서 빨리 가 봐야겠어” 라고 몇 마디 하고서는 부랴부랴 바쁘게 가버렸다.

나는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동정은커녕 나는 그녀를 질투했다.

나의 세계에는 모임이라는 것은 없다. 안가면 안 되는 모임도 없다.

나는 사람이 아주 많은 광장에 서 있다. 사람이 많아 시끌벅적 하지만 “첫 번째. 운동 몸 풀기” 이라는 방송멘트는 나오지 않는다.

학습 불안증

나는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2년 째 구독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지하철 탈 때를 빼고는 거의 이 잡지를 보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잡지를 구독했는지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나의 학습의 불안증을 형식적으로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것 이었다.

문과 박사생인 나는 학습의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세계는 이미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마을에서 누가 누구와 싸웠는지? 누구 집의 옥수수가 잘 자랐는지? 누구 집에 화재가 났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초조해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시대는 “지식폭발”의 시대이다. 나의 “학습의 불안증”은 불치병임을 인정한다. 내가 막 팔레스탄인과 이스라엘의 최근 평화협약에 대해 공부를 했지만, 결과는 그들이 또 싸우기 시작했다. 나는 막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경제모범생임을 알았을 때, 또 그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백분의 천까지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쪽에서 막 베니스의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할 때, 저쪽에서는 또 토론토 영화제를 개최하한다고 한다. 이렇게 "작은 촌"에서..... 매일 발생하는 일은 정말 우리를 현혹시킨다. 내가 까치발을 하고 보려고 해도 보이는 것은 무대 모서리에 있는 여주인공의 신발뿐이다. 여러 차례 한밤중에 깨어 두 눈을 부릅떠도 브라질의 정당제도, 동유럽의 자유화 모델, 뉴웨이브 영화가 어떤 것인지 몰라 온 몸에 식은땀이 흐른다. 어둠속에서 나는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문과박사가 이것조차도 모른다고 나를 질책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벌벌 떨면서 “몰라서가 아니라, 이 세계의 변화가 너무나 빨라서..... ”라고 말을 했다.

그날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컴퓨터 엔지니어인 그는 뉴욕의 큰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그만 두려고 한다고 했다.

나는 놀라서 당신 회사의 대우는 아주 좋지 않나? 라고 물었다.

“아니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은 그냥 그런대로 지내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시장의 신기술을 모르면

그건 완전히 끝이야”라고 했다. 보아하니, 학습의 불안증은 단지 문과 박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 유명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메인 페이지의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는 전부가 이런 광고였다. “북경대총재 EMBA반”, “국제무역연구생반 2년 1.9만!”, “2006년 하계학습폭풍”..... 보라 전 사회가 모두 학습의 불안증으로 물들어 있다.

강호의 돌팔이 의사가 모두 나타나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약을 팔고 있다.

“총재 EMBA반”까지도 생겼다. 병에 걸린 사람, 병을 치료하는 사람, 모두가 쑥스러움을 모른다.

학습은 언제나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모주석은 우리에게 열심히 배워 나날이 진보하라고 가르쳤다. 다만 언제부턴가 공부가 현대 생활의 강박증으로 되어 다들 서둘러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다. 우리와 사회의 관계는 불안한 아내와 매력 넘치는 남편과의 관계처럼 되었다. 언제 어디서 차일 것 같아 매일 데이크림, 나이트크림, 아이크림, 썬크림을 바르고 또 발라서 얼굴 모공이 모두 막혀 버렸다.

지난 번 귀가하면서 집 근처의 광장에 보기만 해도 몸 서리가 쳐지는 현수막을 보았다. “00도시를 학습의 도시로 건설하자!” 지금 “학습”이라는 이 단어는 입안의 껌처럼 씹으면 아주 쿨 해 보인다.

그리고 삼강에서 처음 말하는 것은 “학습을 중요시 하자”이다.

주) 삼강 : 학습, 정치, 정기를 중요시 하는 업무태도

이 슬로건에 부응하기 위해, 나는 지금 탁자위에 있는 칠레교육개혁부터, 북아일랜드 수출업 근황까지 소개한 새로운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돼지머리고기에 대한 향수

이전에 쉼표시인이 《향수》라는 시를 쓴 적이 있다. 우표가 어찌고 배표가 어찌고 하는 내용이다. 나의 향수는 그렇게 시적이지 않다. 모두 아주 구체적이다. 예를 들면 우의백화점의 여름바겐세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는 일, 중관촌 부근의 불법 음반 이외도 아주 중요한 한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돼지머리 고기를 먹는 일이다. 이전에 인민대학을 다닐 때는 항상 긴 줄을 기다리고 나서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늦게 가면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식당으로 가게 유인해 준 것이 바로 진열장 큰 쟁반위의 윤기가 자르르 흘러내리는 투명한 돼지머리고기였다..

돼지머리고기를 먹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첫 번째 문제는 가격이다. 1원6전이면 한 양 정도 먹을 수 있다. 사실 너무 비싸서 귀족 요리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먹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마음이 우울할 때 , 남자친구와 화해해서 기쁠 때, 남자친구와 헤어지지도 화해하지도 않아 무료할 때 돼지머리고기를 먹으러 갔다. 두 번째 문제는 돼지고기 머리는 그다지 고상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뜻 듣기에는 욕하는 말 같다. 나는 여전히 스스로 요조숙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라일락 꽃 처럼 슬픔에 젖어 있는 아가씨처럼 보이일지도 모른다. 요조숙녀의 품위를 지켜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저속한 식욕을 만족시켜야 할 것인지? 나에게 심각한 딜레마를 만들었다. 사실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반찬코너 앞에서, 먼저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사방을 한번 쪽 살펴보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을 얼버무리면서 “ 돼지머리고기 두 냥만 주세요”라고 한다. 사고 나서 바로 보이지 않게 싸서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하여 식당 뒷문으로 빠져간다. 선글라스와 암호만 사용하지 않은 마약 밀거래인 셈이다. 사실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격 떨어지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이전에 친한 친구가 결혼 하게 될 신랑을 몇 명 친구에게 보여주려고 마련한 식사 자리였다. 낯선 사람 앞이라 친구들이 주문하는 요리는 농어찜, 해산물 두부탕과 같은 고상하고 품위가 있는 요리였다.

제일 격조 떨어진 음식이 고추감자 볶음요리였다. 내가 시킬 차례가 됐을 때 나는 고개를 들고 아주 당당하게 “휘바오야오화” 라고 말했다.

주) 火爆腰花 휘바오야오화. 돼지 콩팥을 칼집을 내고 잘게 썰어 콩된장과 마늘·생강가루·피망·파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넣고 뜨거운 불에 신속하게 볶은 요리

인민대학 서문 밖에는 진씨 마라탕 샵브샵브 식당이 있었다.

그 때 나는 남자 친구가 있었고 우리는 자주 먹으러 갔다. 나는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했다. 매운 것을 먹으면 눈물콧물 범벅인데다가 그 다음 날은 계속해서 설사를 했다. 하지만 “마라탕”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듯 한강한 기세로 앞장서서 식당으로 향하곤 했다. 어디 가서 밥을 먹을지 정할 때마다 그 남자친구는 일부러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어디 가서 먹지? 라고 물으면 아니나 다를까 나는 우물 우물대며 ”또 마라탕을 먹으러 가는 게 어때? 라고 말했고 그런 나를 보며 그는 호탕하게 웃어댔다.

이는 그가 여러 번 시도해도 마냥 재미있어 하는 장난 이였다. 돼지머리고기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몇 번 체면을 잃기는 했지만, 돼지머리고기가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때도 있었다.

고상한 것과 비교할 때 격이 낮은 것이 갖고 있는 자체의 오묘함을 알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비록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전문용어에 약하다. 그래서 "정권의 인벌류션"을 들었을 때 호르몬 분비가 가속화되었다.

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가 타는 차가 고급차라고 하면 나는 느긋하고 단호하게 발을 들어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은 고작 18원5전이라고 말 할 수 있었다.

또 예를 들면 막 제5번가에 있는 명품점에서 나와 누추한 차이나타운을 걷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좁고 초라한 속에서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내가 돼지머리고기를 좋아하는 것과 은밀한 관계가 있다. 외국에 가서 돼지머리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다.

비록 가끔 중국식당에서 “두부내장” “ 고추 오리혀” 같은 요리를 먹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머리는 아예 볼 수가 없다. 일요일 오후 초가을의 뉴욕에서 나는 빠져

리게 향수가 생겼다. 아~나는 여전히 라일락의 슬픔에 젖어있는 아가씨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인민대학 식당 윈도우에 있는 돼지머리고기만 아주 깊게 그리워 할뿐이다..

지난날의 꿈

나는 연극 보는 것을 좋아한다. 한때 나는 연극 감독이 되고 싶었다고 여기저기에 말을 했었다. 사실 연극 감독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서 그저 연극 감독이 되고 싶다는 말을 했던 것이다. 아마 “무덤 없는 주검”이라는 연극을 보고 난 후다.

이 연극은 샤르트르의 극본이다. 1997년 북경에서 보고나서 문화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문예소녀의 마음은 한참동안 흔들렸다. 인생관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 나는 공공 기관의 여직원이 되면 아주 괜찮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여직원은 별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연극 감독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연극극장처럼 작은 공간을 좋아한다. 배우와 관중의 숨소리에서 나오는 긴장감과 따뜻함과 약간의 전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영화관과는 아주 많이 틀리다. 영화관은 너무 크고, 대형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배우와 관중은 각자 딴 마음을 가지고 한데 어울리지 못한다. 이에 비해 연극은 영화처럼 요란스럽게 계속 화면이 바뀌지 않아서 좋고 우수한 감독의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다.

주변에 내가 연극 감독이 되고자 한다는 것을 알리고 나서 나는 나 자신이 국제 정치학과의 여 연구생이 연극 감독을 하나로 연결할만한 고리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대학원생으로서 가야 할 길을 따라 나아갔다. 석사, 박사, 박사 후 과정을 마치고 선생님이 되고나니. 부끄러워 더 이상 연극 감독이 되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다.

사실,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 기회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하며 바다를 건너야 한다. 지금 눈앞에 잘 깔린 고속도로처럼, 아무런 막힘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젊었을 때는 꿈이 있다. 하지만 정신이 이상한 사람만이 유명한 연예인과 정말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 1학년 겨울 어느 날, 대학 강당 문 입구에 서서 한 학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학생 연극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가 지도한 연극은 생사, 애정, 시와 노래 등 연극계에서 오랫동안 가장 관심이 많았던 문제를 깊게 파고들었다.

이런 몰입된 연극은 19세의 여대생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그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나는 대강당 문 입구에 앉아 연극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연극이 끝났고 모든 사람이 나오고 그도 나왔다. 나는 용기를 내어 뛰어가 연극이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해 주었다. 그는 “고마워, 잘 가” 라고 말했다.

나는 말없이 학교의 가로수를 따라 걸어갔다. 그 뒤 한 달, 일 년, 몇 년이 지나도 그날 저녁 밤의 추위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다. 뉴욕에 간 이후 뉴욕은 연극의 집거지이라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연극을 많이 봐야겠다고 늘 다짐을 했지만 어찌 어찌 하다가 계속 보지를 못하고 7년이 흘러서도 겨우 서너 편만을 보게 되었다. 어제 갑자기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빨리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물이 눈앞에 있어도 줍지 않다니. 내가 너무 오만하게 느껴져 바로 연극을 보러 갔다. “No End of Blame”는 내가 보고 싶었던 연극 이었다.

한 만화작가가 1차 대전부터 1970년대까지 겪은 경험과 서방과 동방, 모든 것에 대해 환상이 깨지면서 생긴 격렬한 요소들이 모두 그 안에 들어있었고, 이는 나의 격렬한 입맛에 맞았다.

극장에서 걸어 나올 때 나는 감정에 부풀어 있었다. 연극 때문이 아니라 연극을 봤다는 사실 때문이다. 거리를 걷고 있는데, 10년 전의 그렇게 격렬했던 느낌이 다시 새롭게 내 눈앞에서 반짝였다. 나에게는 이런 구상도 저런 구상도 있다.

아! 나는 정말 많은 구상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아주 빠르게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지하철 2호선은 금방 도착했다. 나는 짹짹 사람들 속에 끼여 올라갔다.

Alice

미국에 간지 6년이 다 되어가도 나는 영문 이름이 없었다. 웬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영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마치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꼭 영문 이름을 지어야만 한다면, 나는 Alice라고 짓고 싶다.

Alice라는 이름은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외국 여자에 이름이다. 그 당시 모든 수업의 마지막에는 단어를 외우고 난 후, 선생님이 대화를 몇 마디씩 가르쳐 주었다.

툼이 “What’s your name?”라고 말하면 엘리스가 “my name is Alice라고 말한다. 툼이 “How are you?”라고 하면 엘리스가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말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Tom Waits의 《Alice》 라는 앨범이 있다.

‘Alice’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다. : And the tears on my face/ and the skates on the pond/ they spell Alice/ I’ll disappear in your name/ But you must wait for me/ somewhere beneath the sea.

이외도 나는 가수 Karen Ann을 좋아한다. 이 가수도 “ Song of Alice” 라는 노래를 썼다. 마치 가수가 아름다운 여인을 상상할 때 그 여인을 Alice라고 부른 것 같다. Alice라고 부르는 이 아이는 노래 속에서 언제나 멀리 있고 작어서 내가 자세히 보기 전에 몸을 돌려 사라져버렸다.

이상한 것은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는 한명의 Alice도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내가 알고 있는 무수한 Jeniffer, 무수한 Julia, 무수한 Caroline 무수한 Monica가 있다. 하지만 나는 Alice라는 사람은 알지 못했다. 마치 전 세계가 하나로 단결하여 이 이름에 대한 나의 상상력을 보호해 주는 것 같았다.

내가 가장 익숙한 jeniffer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정말 듣기가 싫다. Julia는 너무 살찌다. Caroline은 성격이 너무 울적하다. Monica는 여자 철인이다. 하지만 나는 Alice라고 하는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내 상상속에서 결점하나 없이 아주 완벽하다.

당연히 Alice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다. 영화 《Closer》에서 아름다운 포트만 아가씨가 맡은 주인공 역의 이름이 Alice였다.

만약 Alice를 살아 있는 사람의 이미지에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포트만과 같은 이미지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 맞다. 어떻게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잊을 수 있겠는가? 사실 지금까지도 나는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내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 이야기가 어떤 남자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남자가 나를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상상이 가는가?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열정 넘치고 분방한 남자가 몰래 동화이야기 한 편을 좋아한다. 그는 귀여운 여자아이는 언제 어디서나 감기에 골골하는 여자아이라고 했다.

Alice는 하나의 보물 상자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가장 섬세하고 가장 화려한 상상력이 포장되어 있다. 매번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할 때 마다 나는 이름과 성을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일생동안 왜 이렇게 하나의 이름만 써야 하는 건지?

그럴 필요는 없다. 막 보스톤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어제 새로운 이웃을 만나자 나는 자기소개를 했다. 그녀는 나의 중국어 이름을 따라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한참을 해 댔다.

나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 나온 용기인지 모르지만 “Call me Alice, then”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웃집 문 입구의 어두운 등빛아래서 나는 그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흥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12세의 꼬마 아가씨가 엄마의 화장품을 몰래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고 두근두근 거리며 거울에 비친 낯선 자신을 보면서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판샤오꾸앙” 을 좋아한다.

예전에 친구와 수다 중에 그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때, 일어나서 뭘 먹을지를 생각하면 잠자리에서 번쩍 일어나게 된다고 했다.

나는 미국에 온 후에 먹을 것 때문에 흥분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나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때 일어난 후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생각하면, 몸만 뒤척이다 더 깊은 잠에 빠져 버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 온 후, 미국인들의 음식습관에 적응하게 된다.

예를 들면 피자, 샌드위치, 이탈리아 마카로니, 치즈를 점차 좋아하기 시작하지만 나는 끝까지 애국주의의 입맛을 지켰다. 조국의 음식에 대해 시종일관 지조를 지켰다. 사실 이렇게 하려면 음식을 적게 먹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요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게으르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던 주방문제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차례 밥을 하고, 나머지는 떠 또는 고양이처럼 뭔가 먹을 것이 생겨야 먹을 수가 있어서 늘 기아에 허덕였다. 매번 밥을 먹을 시간이 되면 빈 그릇을 들고 고국의 방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생선찜, 마라탕, 게 요리 등등 맛있는 요리이름을 떠 올랐고 목구멍으로 계속해서 고통의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내가 “ 판샤오꾸앙”을 만나기 전의 일이다. “판샤오꾸앙”을 알고 난 후, 나는 미국에서의 음식 생활은 확연하게 판샤오꾸앙을 “알기 전”과 “알기 후”로 구분 할 수 있다. “판샤오꾸앙”과의 만남은 내 식사 역사의 분수령 같은 사건만큼 의미가 깊다.

“싹쓸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밥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게 하는 것은 고추장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인 고추장과 비교하면 그 고추장에는 내실이 있어 안에는 버섯, 무우 말랭이, 양배추, 말린 죽순 등등 들어있다.

고추장의 매운맛은 「할머니표」 고추장처럼 그렇게 맵지가 않다. 매운맛 속에 향과 신선한 맛과 이상야릇한 맛도 들어있다.

만약 「할머니표」의 매운 맛은, 무식한 자가 주택가에 서서 큰 소리로 “안홍, 안홍,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외쳐대는 맛이라면 “싹쓸이”의 매운 맛은 짬뽕의 돌고래음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초 고음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심금을 울리는 그 맛이다.

나는 처음 “싹쓸이”를 알았을 때의 낭만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그 후로부터 나는 flushing에 가면 첫째 임무가 “싹쓸이” 몇 병을 사는 것이다.

“싹쓸이”가 있고 난 후부터 나의 밥그릇은 사랑을 찾았다. 보통 나는 냉장고 안에 큰 술을 비축해 놓고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밥 몇 숟가락을 떠서 데운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나의 귀한 보물인 싹쓸이를 꺼내는 순간 나의 방은 환하게 변한다.

나 또한 싹쓸이가 주는 감흥 속에서 나의 흰쌀밥에 몰입한다.

밥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머리를 들 때면 이 세상의 의식주 문제 또한 전부 해결 된 듯 온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만약 나의 엄마가 이런 사실을 알면 분명 마음 아파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내게 준 가장 좋은 기억중의 하나다. 매년 내가 논문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 할 때, 나는 몇 시간 후 식탁에 반짝이는 싹쓸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 기분이 사라진다. 이국 타향에서 내가 어리석게 지냈던 생활에서 싹쓸이는 나의 흥분제이자 나의 미각에 무궁무진한 작은 마술을 부려 주었다. 한동안 너무 바빠 flushing 갈 시간이 없어서 싹쓸이가 다 떨어졌는데 두 석 달은 싹쓸이 없이 밥을 먹었다.

마침 어제 원미가 머리를 자르러 차이나타운 갔다. 나는 가는 길에 싹쓸이를 부탁을 했다. 그는 한 번에 싹쓸이 4병을 사다 주었다. 나는 감동에 겨워 목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정말 너무 고마워.” 원미가 “괜찮아...”. 라고 말하자 “나는 너에게 고마운 것이 아니라 싹쓸이에게 고마워하는 거야” 라고 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집에 오면 탁자위에는 반병 정도 들어있는 싹쓸이와 탁자 옆 쇼파에 행복하게 누워있는 한 여자와, 앞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싹쓸이가 보일 것이다.

나중에 이 여자가 죽는다면 청명절에 지폐를 태우거나, 꽃을 갖다 놓 필요가 없다. 성묘할 때 싹쓸이 한 병을 뿌려주기만 하면 될 것이다.

뉴욕커

물건들을 전부 꺼내서 정리하다가 나는 한 묶음이나 되는 《뉴욕커》를 들추어냈다. 구독신청을 막 했을 때도 거의 읽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아예 읽지를 못하게 되어서 전부 버리기로 했다. 어렵게 《뉴욕커》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한 두권을 기념으로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서 도로 가져왔다.

늙은 뒤에 어느 날 이 잡지를 펼치게 되면 아. 그때 나는 뉴욕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구나! 라고 갑자기 생각날 것이다. 6년, 24세부터 30세까지 여자의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출국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는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오늘 이 시대는 세계주의자가 되는 것 외에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다.

그 후 나는 뉴욕에 왔다. 이 지구상에서 아마 뉴욕이란 곳은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 “세계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곳은 돈 있는 사람이 맘껏 돈을 쓰는 곳이고 젊었을 때 가난한 예술가들이 고향을 떠나 꿈을 찾아 왔던 도시이다.

끝까지 파고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에게 박물관을 제공해 준 곳이고 생계가 막막한 멕시코이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했던 도시이기도 하다. 연합국 정계 요인들이 회의를 여는 곳이고 망나니들이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어느 구석진 곳에서는 중국의 고추장을 살 수 있고 어느 앞쪽 길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손목시계를 팔기도 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부르조아 계급, 소부르조아 계급, 중산계급, 무산계급이 모두 있는 도시이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뉴욕은 마치 흑한과 열대가 공존하고 있는 숲과 같다.

모든 종류의 곤충과 버섯, 하늘높이 쪽쪽 뻗어 올라간 나무는 다 이 곳에서 자라고 있다. 당신이 생명력만 있다면 충분히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정치적으로 인정과 의리가 없는 사람으로서, 나는 정치적으로 인정과 의리가 없는 이 도시를 아주 사랑한다. 한 친구는 늘 뉴욕은 너무 더럽고 수준이 떨어져 정말 싫다고 원망을 했다.

더럽고 질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뉴욕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다. 음악회, 그림전시회, 사진전, 영화제, 거리공

연, 정치회의, 학술세미나가 계속 진행되는 곳이다. 문화가 폭발하는 도시가 더럽지 않고 문란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도시의 신기함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탐색해야 만나온다. 한 사람은 엠파이어스테이드 빌딩과 자유여신상에 백번이상 갔지만 여전히 뉴욕이라는 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뉴욕은 틀에 박혀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이 아니다. 당신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도시이다. 특히 당신을 무도장의 플로어에 초청하는 여인처럼 뉴욕의 아름다움과 열정은 체험해야 알 수 있다. 때문에 당신은 꼭 춤을 배워야만 한다.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학우와 전화에서 뉴욕을 떠나게 되면 슬플까에 대해 말하게 되었는데 나는 지금은 바빠서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 했다.

사실 나는 줄곧 창문가에 엮드려 폭풍우 같은 슬픔이 나한테 덮쳐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슬픔은 폭우처럼 쏟아진다면, 나는 폭우 속으로 뛰어 들어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비를 흠뻑 맞고 심한 감기에 걸려 열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질 것이다.

문제는 초조하고 조바심이 나게 몇 개월을 기다려도 폭우는 쏟아지지 않았다.

나는 이런 자세로 오랫동안 있었다. 상대 쪽에서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지 않는다. 됐어! 됐어. 할 일 하러 가야지

어떤 학우에게 나는 50세가 되면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거라고 말했다. 그럼 그 사이에는 뭐 하는데? 나는 그 사이 중국에 돌아가서 조국에 감사를 하며 조국을 위해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웃었고 나도 덩달아 즐거웠다..

그때가 되면 나는 품위 넘치는 멋진 모습으로 콜롬비아 대학교의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백발의 흰머리, 온몸으로 넘치는 학식과 경륜은 내 옆을 지나치는 사람들마저 학문의 분위기에 물씬 빠지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도 나는 Mill Korean이 여전히 거기에 있어서 매운 순두부를 먹을 수 있기 바란다. Cafe swish도 있기를 바란다. 내가 50세쯤 되었어도 분명히 여전히 밀크티를 좋아 할 것이다. Riverside Park 은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들을 데리고 산보하러 나갈 것이고 나의 아들은 태양처럼 밝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녀석일 것이다.

콜롬비아대학에 못 들어가면 뉴욕대학도 괜찮다. 뉴욕대학에 들어갈 수 없으면,

뉴욕시립대학도 괜찮다. 실제로 어디에 가든 관계없다. 5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이처럼 높은 학식과 경륜을 갖춘 당당한 세계국민으로서, 뉴욕이라는 곳은 나의 희끗희끗한 양쪽 귀 밑머리에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그날, 흑백 필름이 들어있는 오래된 카메라를 들었다. 나는 콜럼비아 대학 근처에서 찰칵찰칵 셔터를 눌렀다. 모든 기념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다. 은화네 집 입구에서, Nausbaum and Wu cafe의 창가 자리에서, Butler library 오층 건물 열람실에서 찍었다. 모든 기억들이 모두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들뜬 마음으로 필름을 꺼내 그 사이의 노동의 성과를 빼내보려고 했다. 하지만 필름을 돌려주고 빼내야 하는 것을 잊어버려 카메라 뚜껑을 바로 여는 바람에 모든 공이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하느님이 주는 또 다른 신호일 것이다. “당신은 추억이 필요 없다. 이 도시는 이미 당신의 피 속에 녹아 흐르고 있다. 만약 뉴욕 커의 진정한 의미가 세계적인 국민이라면 뉴욕에 오기 전 나는 아마도 뉴욕 커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뉴욕을 떠 난후에도 여전히 그러할 것이다.”

지하철 1호선

몇 년 후 뉴욕을 떠나 다시 뉴욕을 떠올리면 나는 무엇을 떠올릴까? 아마도 지하철 1호선 역에 서 있는 내 옆을 획 소리를 내며 지하철이 달려오는 찰나,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린 내 모습일 것이다.

1호선 지하철은 너무 낡았다. 철로 여기저기가 쓰레기다. 혹시라도 빗물이 고이기만 하면 악취가 진동을 한다. 쥐떼들은 철도변을 활보하며 산책한다.

이렇게 낡아빠진 지하철은 나와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1호선 지하철은 내가 우리 집 에서 시내까지 나갈 때 이용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지난 6년간 이 지하철을 타고 가서 5번가 또는 34번가에서 쇼핑을 했고 차이나타운에서 야채를 사고 42번가에서 할리우드 영화를 보거나 film forum에 가서 문예 영화도 보았다. 또 "꾸상위이"나 "뒤이" 식당에서 사천요리를 먹었다.

나는 그것을 단순히 교통수단으로만 보지 않았다. 어떤 것이든지, 백년의 역사가 있는 사물은 어찌 단순히 도구만으로 보이겠는가? 이 낡아빠진 플랫폼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서려 있을까? 커플 영화관이 끝나고 난 후의 토론, 남자 아이가 깊은 밤 첫 키스를 하고 난 후의 흥분, 타지의 배우가 오디션에서 낙방한 후의 실망, 여자애들이 헬로윈데이 가면무도회에 가는 길에서 누리는 즐거움, 노부인이 사람들 속에서 허둥대는 모습 등.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사람들 속에는 우디엘런, 잭케루악, 존레논, 블룸버그가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우디엘런, 잭케루악, 존레논, 블룸버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늙어버렸다. 그렇게 많은 꿈과 그들의 늙어간 숨결 속을 지나온 백년이 넘는 지하철이 한낱 도구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If only those rails could talk .

많은 사람들은 더럽고 문란한 1호선 지하철을 싫어한다. 깨끗함과 풍부함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낡아빠진 지하철은 바꿀 수 없는 역사이다. 그래서 나는

그 낯아빠짐이 바로 순결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움과 풍부함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 가능한 것이다.

막 뉴욕에 왔을 때, 지하철에 탔다가 길을 잃었다. 한밤중에, 나는 어느 차에서 어느 차로 바꿔 타야 하는지를 몰라 조금서 눈물이 나올 지경 이었다. 마침 황색 조끼를 입은 철도 공들이 보여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마치 이야기속에 나오는 "노동자 아저씨"처럼 손짓으로 나를 1호선 지하철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1호 지하철 공화국의 동포들을 보면 14번가에서 내리는 예술가, 42번가에서 내리는 외지관광객, 66번가에서 내리는 예술애호가, 86번가에서 내리는 화이트칼라, 116번가에서 내리는 대학생, 135번가에서 내리는 거지 등이다. 이 노선은 뒤로 갈수록 더욱 가난한 노동자, 무더운 날씨에 밀짚 모자를 눌러 쓴 흑인, 립스틱도 채 바르지 않고 밖으로 나온 중년부인, Voice지 스포츠 판을 들고 열독하는 노인 등이다. 이들의 얼굴에는 노동하는 자들의 열정적인 삶의 표정이 녹아 있었다.

Sex and City에서 나오는 네 명의 미녀는 아마 여태껏 지하철을 타 본적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치마는 너무 예쁘고 하이힐은 너무 높다. 그녀들은 아마 지하철의 쥐를 보면 놀라서 넘어질 것이다.

어느 날밤 잠이 오지 않고 재밌는 혼자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떠오르지 않아 그냥 지하철을 탔다. 1호선을 타고 42번가에서 Q라인으로 바꿔 타고 끝까지 갔다.

그날 저녁 나는 모든 역이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역들은 밝거나, 어둡거나, 오래됐거나, 새롭거나, 한산하거나, 떠들석 하거나 했다. 한낮에 사람이 많을 때는 바쁘게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에 가려졌다가도 저녁이 되어 인적이 드물어지면 모든 역은 생생하게 살아난다. 마치 자태가 각양 각색인 기생들이 길 옆에 한 줄로 서서 오고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는 것 같다. 새벽 네시, 마침내 종점 역 Coney Island에 도착했다. 역은 정말 크고 텅 비어 있어 조용했다. 몇 명의 부랑자는 의자에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말짱하게 정신이 맑아있었다. 창백한 형광등 아래에서 나는 메아리로 들려오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은빛 지하철이 선로위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새벽 네 시에 지하철 탄 이 미친 여자가 이 세상과 자매처럼 친해져 어떤 화해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모음

영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소설 한권을 여행 가방에 챙겨 넣는 것이 생각나 서재를 한번 쓱 둘러보다 모음의 단편소설집을 보게 되었다. 바로 이거다. 내가 갈 곳이 영국이라 영국 소설가의 작품을 읽으면 제격일 것이다. 게다가 단편소설집은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기가 간편해 여행자에게 가장 적합하다.

내 판단은 정확했다. 이 며칠 나는 트리니티 컬리지의 음침하고 장엄한 교회당같은 방안 소파에서, 런던청년숙소의 이층침대에서, 길가의 작은 커피숍에서, 그리고 왕복 비행기 안에서 모음은 나의 유일한 여행 동반자였다.

런던에 와서 막 알게 된 지명들은 그의 소설에서 자주 등장했다. Charing CROSS, Picadily Circus, Bond Street 이런 것들은 모두 낯선 지명이지만, 모음의 소설을 읽게 되면서 어떤 친밀감이 느껴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시의 명승고적지를 참관하기는 쉽지만 그 도시를 제대로 느끼는 건 어려운 일인데 모음의 소설을 읽고 나서 이 도시의 꼬불꼬불한 뒷골목까지 알게 된 듯 싶었다. 모음이 묘사한 옛 런던은 변화하고 허영에 들뜬 그리고 슬픔에 젖은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미인으로 변했다.

모음은 내게 준 강한 느낌은 바로 따뜻함이다. 19세기 후반기, 20세기 상반기 소설가들의 "실험문풍"과는 달리 그의 언어는 소박하고, 일상적이고, 심지어는 잔소리 같기도 하다. 그의 소설을 읽고 있으면 마치 평범한 노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노인이 하는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많은 평론가들은 그를 "이류작가"라고 본다. 그의 소설에는 글 쓰는 기교와 창의적인 발상이 부족하다. 평론가들이 재해석하고 글의 감춰진 내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들의 이해력을 과시할 수 있게 한 부분들이 적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바로 그의 글이 가장 사랑스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율리시스, 마르셀 프루스트, 카푸카 등 "대가"들의 책은 읽어 내려갈 수가 없다. 이런 "실험문풍"의 기법으로 쓴 소설에는 작가의 자아의식이 너무 강렬하게 반영되어 문자사이로 손이 뻗어나와 개성이라는 깃발을 마구 흔들며 대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읽고 있다기보다 어떤 행위예술을 감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모음은 다르다. 그는 이야기 깊은 곳에 숨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서술자의 배역에 만족한다. 과분한 자기 목소리나 어감 때문에 이야기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는 원래부터 야심찬 소설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지 재미있는 소일거리를 같이 공유하는 것을 즐겨워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가 글을 쓰는 목적은 문학사에서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소연 하는 친구들의 탄식소리 때문이다.

모음은 일생동안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다. 공간의 이동과 시대의 변천으로 그는 이야기가 풍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이 두꺼운 소설집에서 그가 제일 많이 다룬 내용은 영국의 신사 혹은 상인이 몰락한 식민지에서의 처지이다. 자기 친오빠를 사랑하게 된 여자애, 젊은 애인에게 버림받은 중년 여인, 피아니스트를 꿈 꾸는 귀족소년, 술 중독으로 자살한 식민지 상인 결말은 항상 어떤 사람의 죽음을 다루었지만 정작 죽음은 쓰고 있는 그는 오히려 전혀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했다. 마치 떨어지는 낙엽보다 더 가벼워 보였다.

분명 다른 우수한 작가들처럼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정서는 슬픔과 연민이지만 그는 그 슬픔과 연민의 흔적을 드러내지 않고 냉담하고 무표정하게 다루었다.

그의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특별히 친근감을 느끼는 원인은 그가 쓴 "고향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는 혼자서 이국타향의 문화 속에서 느끼는 나약함 그리고 이국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느끼는 거리감을 섬세하게 다루었다. 마치 오늘날 중국의 "유학파"의 실태를 그대로 묘사한 것 같았다. 공간의 이동과 시대의 변천은 돌아갈 곳이 없는 현실에 이중적인 뜻을 부여했다.

오늘 구글에서 모음에 대해 검색해보았다. 그는 어렸을 때 고아가 되었고, 작은 키에 양성애자인데다 말까지 더듬었다고 한다.

과연 한 남자의 섬세함은 이런 원인 때문일까? 민감한 감수성은 건강한 에너지가 될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진부한 논리들이 내 기분을 망쳐버렸다. 마치 모든 예술적 상상력이 결국 표현하고자 한 것이 자아에 대한 혐오인 듯 말이다.

은란

"학교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예요."

통통한 수학가가 나를 데리고 앞으로 걸어가다가 넓은 잔디밭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기 꽃들이 보이시죠? 정말 귀엽지요. 봄이 오면 더 예뻐 질 것예요."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 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문득 문득 불시에 튀어나왔다.

나는 내가 돌아다닌 곳들과 발생한 일들에 대해 전부 기억할 수 없다. 10일전은 우가장에 6일전은 북경에, 4일전은 뉴욕에, 그다음 지금은 케임브리지에 있다.

겹겹이 둘러싼 현실과 그 많은 곳에서 내가 한 역할들을 생각하면 지친다.

우가장에 있을 때 친척이 나에게 알려줬다.

만약 귀국하면 방법을 대서 공산주의 청년단 중앙에 들어가야 돼. 청년단 중앙이 제일 좋아. 빨리 출세 할 수 있거든.

북경에서 앞집의 라씨는 맞은편 셋째 삼촌의 감언설에 넘어가 감성에 찬 목소리로 애지중지하는 삼륜자전거를 향해 노래했다.

항상 너에게 고백하고 싶어. 내 마음이 얼마나 씩씩한지. 너에게 진심을 말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는지....

뉴욕의 식당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

아 ! 케임브리지에 가서 교수를 한다며? 정말 좋겠다. 나중에는 중국에 돌아가서 "장강학자"가 되면 손쉽게 백 만원 이상 벌어.

하지만 캠브리지 대학에서 통통한 수학가가 멀리 있는 잔디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기 꽃들이 보이시죠? 정말 귀엽지요. 봄이 오면 더 예뻐 질 것예요.

겹겹이 둘러싼 현실과 그 많은 곳에서 내가 한 역할들을 생각하면 지친다.

"특수한 제도" 하에 부모 말을 잘 듣는 딸, 사회에 불만이 많은 청년, 성공을 위해 분투하는 유학생, "차가운 의자"에 앉은 외면당한 학자. 내가 프로연기자라고 해도 10일내에 이렇게 많은 역할을 소화해내기는 힘들 것이다. 나는 능력이 마음을 따

라주지 못해 애가 탄 교통경찰처럼 도로중간에 서서 체증된 차량들이 경적을 눌러대며, 서로 끼어들고, 서로 욕질을 해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순간, 바로 지금 그 교통경찰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눈을 감은 채 귀를 막고 세상을 부서버릴 만큼 온 몸의 힘을 다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수학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여기 캠브리지 대학에 20년 동안이나 생활했는데 여태껏 싫증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럴리가요?

그는 말했다.

It's a lovely town, isn't it?

당연하지요.

뭐가 당연하지? 어떻게 그렇게 당연할 수 있지? 어떻게 싫증이 나지 않을 수 있지요?

박물관에서 당신은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 앞에 20분동안 서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한 곳에서 20년 동안이나 교직에 있을 수 있나요?

다른 대학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활발한 영국아가씨는 나를 데리고 학교 잔디밭을 가로 질러 갔다. 작은 길 양옆에 두 줄로 서 있는 나무는 우거져서 하늘에 아치를 만들었고, 햇빛은 금속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아가씨는 재잘 거렸다.

날씨가 참 좋아요.

네. 날씨가 참 좋아요.

But I don't care.

How can I not care?

나는 자신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 내가 있는 곳은 전설의 캠브리지 대학이다. 이곳의 잔디는 여태껏 시든 적이 없고 이곳의 공기는 너무나도 깨끗하다. 심지어 이곳은 벽돌하나하나까지 박식해 보인다.

자유로이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는 오리들, 교회식 건축물 사이에 뻗어있는 뉴턴이 걸어서 유명해진 청석돌길, 만약 here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쌍의

날개를 달아준다면 여기야말로 명실상부한 명분이 맞는 천국이라고 생각한다.

But I don't care.

사실 나는 묻고 싶다. 엄마에게, 국내의 기자, 변호사, 교사를 하는 친구들에게, 뉴욕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한 친구들에게 나는 그 수학자에게 물은 말을 묻고 싶다. 싫증이 나지 않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매일 기계처럼 똑같이 반복된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흥미진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호기심이 발동한다.

싫증났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

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싫증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역할을 만들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다가 지나치게 많은 역할로 인해 생긴 "교통" 체증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고 있을 뿐이다.

친구 샤오자오가 말했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영화라도 찍으러 가자.

처음으로 돌아가다. 얼마나 좋은 표현인가.

아주 오래전 L이 나에게 그녀의 꿈은 아주 많은 돈을 벌고 하룻밤 사이에 그 돈을 다 잃는 것이라고 했다.

누구나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물론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처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에서 0으로 바뀌는 그 곡선이 있는 0이다.

몸을 돌리는 순간 "뛰는" 그 동작이 있어야 한다.

수학가는 나에게 물었다.

일주일에 세 국가를 다녔는데 시차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겠지요?

나는 그렇다고 했다.

깨어나면 오전인지, 오후인지 아니면 저녁인지를 모릅니다. 아마 그게 다 맞을지도 모르죠.

치마

나는 내 치마들을 세어 보았다. 원피스 23벌! 나는 자신이 용맹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라도 된 듯이 느껴졌다.

여름이 오자마자 나는 부하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내게는 검은색 계열의 치마가 7개, 붉은 색 계열의 치마가 3개, 녹색 계열 치마가 3개, 하얀색 계열의 치마가 3개 있다. 나에게 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기부대, 황기부대, 홍기부대를 이룰 정도로 부대진영이 강대했다. 나는 이 사병들 중에서 간부 몇 명을 골랐다.

Club Monica를 흑색기 부대의 수장으로, Sisley는 백색기 부대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관직과 작위를 내리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이 치마들을 입을 것인가? 미국이란 나라는 좀 이상하다.

파티에 가야만 치마를 입는다. 파티가 없는 날은 다들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는다. 지금 원피스는 대부분이 가슴이 깊게 파였고, 허리라인이 선명한 민소매 스타일이다. 만약 평상시에 도서관에 가거나 커피숍에 갈 때 이런 옷차림을 하면 사람들은 내가 입은 옷이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생각 할 것이다. 만약 나의 맞은편에 앉은 남학생이 나의 이런 옷차림 때문에 싱숭생숭하고 집중할 수 없어서 미적분과 라틴어를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았다면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 그러나 만약 그 남학생이 내 옷차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나의 허영심이 심하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가령 치마를 딱 한번 씩만 입는다고 해도 여름에만 23번의 파티에 가야 비로소 그 치마들을 다 입을 수가 있다. 나에게 23번의 파티가 있을 수 없다. 설사 내가 은화네 집에 수박을 먹으러 가는 것까지 파티로 쳐도 23번은 되지 않는다.

남자와 식사하거나 커피 마시러 갈 때는 더욱 생각 없이 치마를 입고 나가서는 안 된다. 만약 치마를 입는다고 하면 보통 하이힐을 신어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하고 귀걸이, 목걸이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화장 하고 , 귀걸이, 목걸이로 장식하고 나서 남자 앞에 나타났을 때 나의 얼굴에는 "절망"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제일 무서운 건 절망이 아니다. 더 두려운

건 이렇게 잔혹한 군사기밀이 적의 진영에 폭로되어 적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대신 자신의 위풍이 꺾이는 것이다.

비록 나의 치마는 파티의 수량보다 훨씬 많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작년 겨울 친구와 같이 결혼식에 갔다. 청첩장에 옷차림에 대한 요구는 casual chic였다. 나는 정말로 믿었다. 정말 casual하지만 chic하지 않은 스웨터를 입고 나갔다. 겨울철인 만큼 스웨터가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결혼식은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오페라극장에서 치러졌다. 결혼식장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녀들이 긴 드레스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돌아다녔다.

유독 집에 23벌씩이나 되는 원피스가 있는 여자만이 머리를 졸라매고,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서 부끄러워 구석에서 콜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만약 거기에서 콜라를 마시지 않고, 쭈그리고 앉아 호빵을 뜯어먹고 있었다더라면 그 모습이야 말로 내 옷차림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을 것이다.

전쟁에 참가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혹은 전쟁할 기회가 있어도 늘 놓쳐버리기 때문에 장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천일동안 훈련시킨 사병을 결정적인 순간에 쓴다고 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 머리를 빼들고 주위를 둘러봐도 평화와 발전이야 말로 현재 국제형세에 맞는 주제이다. 전쟁은 없다. 설마 이렇게 용맹한 사병들이 서랍 안에서 묵묵히 썩어가야만 하는가?

돈을 많이 들였으니 어떻게든 입어서 본전을 찾아와야 한다.

두 시간 후 나는 최근에 새로 산 가장 아끼는 흑백 꽃이 있는 원피스를 입고 아름다운 뽀내면 당당하게 거리로 나갔다. 맞다. 나는 도서관에 가고 있다. 이렇게 입고 중국혁명사에 대해, "연안정풍"에 대해,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의 관계에 대해, 군중동원의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지나치게 성대하게 입었을까?

나는 너무 많은 약속과 암묵적 약속이 존재하는 현실세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기술문제

한동안 집에 있는 전자제품들이 돌아가면서 고장이 났다. 컴퓨터를 시작으로 디지털카메라, DVD기, 전기난로, ipad 순이다. 오늘 그 돌림이 끝났는지 다시 컴퓨터부터 고장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부지런히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컴퓨터가 다운되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았다. 모니터에는 흑백이 엇갈린 횡단보도같은 무늬가 나타나 눈꼴사나웠다. 재부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운 되었다. 이번에는 모니터전체가 격자무늬였다.

저녁까지 컴퓨터는 온갖 이상한 모습으로 다운되다가 결국은 다운도 귀찮은지 아예 먹통이 되어 버렸다.

이런 현상은 우리 집의 머피법칙이 되었다. 오늘 이 전자제품을 수리하면 내일 다른 게 고장나버린다. 더욱 한심한 것은 미처 수리하지 못했는데 다른 제품이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이 바로 고장나버리는 것이다. 나는 이 전자설비들이 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한통속이 되어 어떻게 하면 나를 기가 막혀 죽일지 작정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다. 그것들은 몰래 당직제도를 만들어 삼교대로 돌아가면서 죽은 체 했다. 오늘은 너가 죽은 체 하고 내일은 내가 죽은 체 하는 것이다. 목표는 하나이다. 내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반동단체에서 제일 큰 두목이 컴퓨터라고 생각한다. 컴퓨터가 제일 잘 고장 나기 때문이다. 이미 두 달째 충전을 할 수가 없다. 새 배터리를 사라고 나를 속여 새로 구입했지만 여전히 충전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아예 충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하면 스크린이 먹통이 되어 버린다.

컴퓨터란 놈은 내가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잘 알기에 마치 기원의 최고 명기인양 갈수록 허세를 부렸다. 나는 가끔 그것을 부셔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부셨다고 해도 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혁명분자를 한명 죽인 들 후임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음 컴퓨터를 사온다 해도 이 컴퓨터처럼 허세를 부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정말 나를 화나게 한다. 그 원인은 내가 전혀 기술에 대해 문의한

이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나는 재부팅밖에 할 줄 몰랐다. 난로가 고장 나면 나는 집주인을 찾았고 DVD가 고장 나면 새로 구입한다. 디지털카메라가 고장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ipad가 고장이 나면 나는 아예 듣지 않는다. 어쨌든 모든 기술문제에 부딪치면 나는 머리를 틀어박던가, 전자제품의 모든 버튼을 고장 날 때까지 계속 눌러댈 것이다.

아니면 욕설을 퍼붓는 것이다. 어떤 때는 욕을 계속 하다가 보면 희한하게도 고쳐질 때도 있었다.

오늘 컴퓨터가 108번째로 고장이 났고 나의 분노는 마침내 존재주의식의 厭世感으로 치달아 올랐다. 드디어 나는 현대성의 정체에 대해 생각했다. 이런 도구들은 사람들을 노동에서 해방 시키 위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목표를 잊어버리게 하는 과정일 뿐이다. 예를 들면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적 측면의 문제는 잊혀버려진다.

만약 내가 한그루의 나무라면 나와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은 형식일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없을 것이다. 우아한 古典사회에서는 “내가 생각하니 고로 내가 있다”지만 오늘날 이렇게 변태적으로 변해버린 사회에서는 “컴퓨터를 두르리니 고로 내가 있다.”가 아닐까. 또 생각해보면 이 시대에 태어 난 내가 문제이다.

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나는 어느 시대에 태어나도 문제였을 것이다. 만약 내가 어린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오늘은 여기가 아프고 내일은 저기가 아프다고 투정부려 나를 귀찮게 했을 것이다. 또 길지 않은 짧은 인생에서 이런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해야 할 것이다.

“기술”이란 단어의 광범위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인생은 물을 주사한 돼지고기처럼 고기는 조금뿐이고 전부 물일 것이다. 또 나의 모든 원망은 단지 게으르기 때문이지 본질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의 구분은 없다. 기술적인 문제가 바로 본질적인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Dell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Dell의 기술요원은 컴퓨터를 보내면 수리해 준다고 했다.

컴퓨터를 보내기 전에, 하드 드라이브를 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에 그가 말했다.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하드 드라이브를 빼라고 ?

이제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고난도 기술이다.

내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컴퓨터에서 사정없이 하드드라이버를 제거 한다고 상상해보았다.

나, 컴퓨터, 드라이버, 이 세 단어가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가?

마치 김정일, 북한, 핵무기, 이 세 단어가 한자리에 모이면 안 되는 듯이 말이다.

나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방 안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인생은 전부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것들은 도리가 없어 보였다.

결국 나는 화내는 것에 지쳤고 또 놀라서 지쳤다. 그래서 소파에 쓰러져 꼼짝도 못한 채 또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기술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이다.

나의 결론은 이러하다. 밥 먹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밥 먹는 문제는 또한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마무리하고 나니 마음이 허무하지 않았다. 또한 생활을 경험한다는 핑계로 세월을 헛되게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현실에서 제일 재미없는 일이 바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닐까.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

최근에야 비로소 나 자신이 유연성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요리를 좋아한다. 중국 요리 중에서도 사천요리를 가장 좋아한다. 사천요리 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위시양런지아”요리점다. “위시양런지아”요리점에서도 가장 좋은 곳은 백성상가에 있는 그 집이다. 백성상가에 있는 "위시양런지아"요리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쉬이주우위”다. 은화가 썩은 냄새가 나는 blue cheese를 집어 들고 “맛있어.”라고 말할 때 나는 민족의 절개를 지키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고집스런 입을 부끄러워해야 할지 몰랐다.

제일 이상적인 주택에 대해서도 아주 고집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대도시에 10층 이상 층수의 아파트에 살고 싶다. 아파트 부엌은 오픈되어야 하고 좁고 긴 나무 바닥재를 펴야 한다.

주의하라! 좁고 긴 나무 바닥재로 된 바닥이다 ! 사각 바닥재는 안 된다 !

아! 맞다. 건물에서 내려와 걸어서 5분 이내에는 반드시 간장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간장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슈퍼마켓이다. 가장 좋은 슈퍼마켓은 동아와 양념에 절여 삶은 돼지 귀를 팔아야 한다.

나는 바로 이런 곳에 살고 싶다. 당신은 시골 전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혹은 수영장과 잔디가 한 눈에 보이는 통 유리창이 있는 집으로 나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빌게이츠의 호화 저택과 바꾸자고 해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정해졌기 때문에 마치 목구멍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다른 음식에 대한 식욕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나는 자신이 줄곧 심리적으로 동년의 어느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나의 조카가 세 살 때 잘 때면 언제나 담요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야 잠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잠들지 못했다. 그 애는 지금 다섯 살이 되었고 더 이상 담요를 만지작거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세 살 때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플로워 스탠드 등은 반드시 위로 향해 있어야 하고 컴퓨터 무게는 반드시 3파운드 이하여야 한다. 운동은 반드시 해질 무렵에 해야 하고 과일은 반드시 신맛이 나서는 안 된다. 만약 차를 산다면 반드시 비틀즈를 사야하고, 개를 키운다면 반드시 poodle이어야 한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은 정말 슬프다. 비록 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더욱 분명하다.

나는 키가 반드시 165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유전자는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서너 명의 친구들과 반드시 며칠에 한번 씩 만나 식사를 하면서 허풍도 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나는 앵두가격이 반드시 1파운드에 1원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일상인은 내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

나는 테러리스트는 반드시 시민을 습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전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두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 그녀들, 그것들.

그래서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 외톨이가 된 나는 10층 이상의 아파트에 살지 못했고 "위시양런지아"요리집의 "쉬이주우위"를 먹지 못한 채 의기소침하게 자랐고 생활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은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조만간 영국 대학교수로 발령이 날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물었다. 이런 교직 자리를 얻게 되어 감격하겠네?

나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학우, 그 곳에 가서 집에서 내려오면 동과나 양념에 절여 삶은 돼지 귀를 파는 마트가 없다면 무슨 흥분 될 만한 일이 있겠는가?